SOLIS

미래로 가는 길

지속 가능한 사회 질서의 구상

System of Learning, Integrity & Sustainability

SOLIS

SOLIS — 미래로 가는 길
고전판 · 한국어 · 2026년 10월

라이선스: CC BY-SA 4.0 (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SOLIS — 미래로 가는 길”을 링크와 함께 밝히고 고친 것을 같은 라이선스로 나누는 한, 이 저작물을 복제하고, 나누고, 번역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읽고 널리 전해 주세요: xfuturex.netlify.app/ko

개정판. 한 사람이 구상하고 썼으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개정했다. 모든 낱말은 저자가 검토했고, 그 책임을 진다. 이 번역은 독일어 원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으며, 아직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의 감수를 거치지 않았다.

차례

열네 개의 장



01 **토대** 6
기존 질서들의 막다른 길 8
갈림길에 선 인류 10
다섯 가지 윤리적 토대 11
좁은 핵과 넓은 자유 14
이 책의 방법과 구성 15

02 **사회와 권력의 질서** 17
기본권과 그 사이의 저울질 18
권력의 질서: 고리 20
공론장, 미디어, 그리고 해석의 주도권이라는 물음 27
질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29

03 **법과 정의** 31
윤리와 법의 이중 구조 32
누구나 이해하는 법 33
보복의 한계 33
회복적 정의 34
공정한 절차와 법 앞의 평등 35
토대에 대한 열린 해석 35
시민 사이의 다툼 36
누가 재판하는가 36
강제의 한계 37

04 **안전, 방위, 평화** 38
누가 칼을 쥐는가 39
고리에 매인 강제력 기구 40
경찰국가 없는 내부 안전 41
스스로 끝나는 예외 41
공격 없는 대외 방위 42
지구 방위와 민방위 43
적극적인 일로서의 평화 44

05 **경제와 자원** 45
소유와 공유재 46

기본 공급과 가치 포인트 48
사업체, 자본, 혁신 54
노동과 기여 56
분배의 정의 58
노후 보장 60
순환 경제와 에너지 62
세계적 경제 협력 63

06 **지구, 생태, 재생** 65
행성적 한계 66
보존을 넘어선 재생 67
닫힌 순환 67
생명의 터전의 권리 68
농업과 먹을거리 69
에너지와 먼 미래 69

07 **교육과 지식** 71
권리이자 토대인 교육 72
평생 배움 73
지식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 75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76
윤리 교육 77
세계적 지식 네트워크 79

08 **건강과 안녕** 80
모두를 위한 보건 의료 81
수리 대신 예방 82
마음의 건강 83
사회적 건강과 공동체 84
디지털 보건 체계 86
세계적 보건 네트워크 87
노년과 작별 88

09 **문화와 의미** 89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의 문화 90
예술, 음악, 문학 91
영성과 철학 92
의례와 공동체의 경험 93
의미 찾기와 개인의 충만 94
삶의 기쁨과 유머 95
세계적 문화 교류 96
문화의 자유와 움직이는 정체성 97

10 **기술, 인공지능, 미래** 98
미래 연구와 시나리오 계획 99
도구로서의 기술 100
인공지능과 인류 101
디지털 공유재 103

트랜스휴머니즘과 의식 104
우주 연구와 행성 간 윤리 106
위험과 재난 관리 107
우주 속 인류의 자리 108

11 **아이와 가족** 110
출생과 이른 유년기 111
교육과 놀이 112
가족의 형태 113
보호받는 공간과 정서의 성장 115
청소년기, 정체성, 자기 찾기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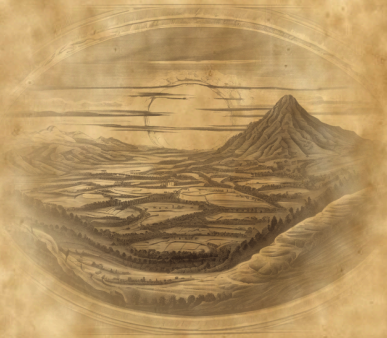
12 **실현과 이행** 118
기존의 것에서 SOLIS로 가는 길 119
전환의 단계 121
행위자, 역할, 저항 122
옛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124
소통과 설득 126
국제적 확산과 적응 127
길을 무엇으로 잴 수 있는가 128

13 **세계 질서: 민족들 사이의 SOLIS** 130
행성 층위의 고리 131
함께해야만 이루어지는 행성적인 것 132
세계적 정의 132
소속과 이주 133
섞인 세계에서 살아남기 134
하나로 묶였으되 획일적이지 않은 인류 134

14 **요약과 전망** 136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토대 137
한눈에 보는 구성 요소 138
왜 SOLIS가 필요한가 141
큰 비전 142
인류를 부르는 소리 143
맺음말 144

장

01



토대



신이 높은 고원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라. 눈앞에는 넓은 풍경이 펼쳐지고, 사방으로 오래전에 다져진 길들이 뻗어 있다. 자본주의의 넓은 대로, 사회주의의 오솔길, 민주주의의 구불구불한 모자이크 길, 독재의 돌투성이 행군로. 이 길들은 저마다 여러 세대의 발자국을 지니고 있고, 저마다 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길은 같은 벽 앞에서 끝난다.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때도 이 벽을 느낀다. 앞다투어 쏟아지는 기후 보고서에서, 불타는 숲과 과열된 바다에서 그것을 느낀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벌어지는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 사이의 격차에서, 노동의 세계에 더는 자리가 없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본다. 신뢰가 무너진 탓에 흔들리는 민주주의와 힘을 얻는 독재에서 그것을 겪는다. 그리고 끝없는 알림이 만드는 디지털의 안개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먹어 치우고 생각을 조종하며 인간다움을 해어지게 하는 알고리즘에서 그 냄새를 맡는다.

이 책은 이 벽 앞에서 끝나지 않는 길을 그려 보려는 시도다. 그 길의 이름은 SOLIS다. 그것은 정당의 강령도, 종교도, 국가도 아니다. 이번 세기의 조건을 견뎌 내는 사회 질서의 구상이다. 그 안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도 공정함을 잃지 않고, 위기에서 더 강해져 나오며,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질서다. 구상을 시작하기 전에 왜 그것이 필요한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기존 질서들의 막다른 길

인류는 역사를 거치며 몇 가지 커다란 질서의 구상을 내놓았고,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어 냈다.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규모로 번영과 발명의 힘을 풀어놓았다. 동시에 생명의 자연적 토대를 약탈하고 사회를 갈라놓았다. 사회주의는 평등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현실의 모습에서는 자유와 발명의 정신을 질식시켰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다. 그러나 수많은 목소리가 방향 없는 소음이 되고 스스로를 바로잡는 장치가 없을 때 그 한계에 부딪힌다. 독재는 결단과 질서를 보여 주었지만, 그 대가로 존엄과 창조의 힘을 치렀다. 그것 없이는 어떤 사회도 살아 있을 수 없다.

이 구상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저 틀린 것은 아니다. 저마다 자기 논리로는 넘어설 수 없는 내적 한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날 이 한계들이 이토록 날카롭게 드러나는 까닭은 그 질서들이 생겨난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큰 도전들은 더 이상 국가 단위가 아니고, 더 이상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더 이상 느리지 않다. 기후의 변화, 부의 집중,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격변, 진실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무너지는 일이 서로 맞물린다. 이것들은 서로를 키우며, 기존 제도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펼쳐진다. 더 느리고 더 경계 지어진 세계를 위해 지어진 질서는 연결되고 가속된 세계를 더는 믿음직하게 이끌 수 없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갈아 끼우면 되는 고장 난 톱니바퀴가 아니다. 설계 자체가 더는 조건에 맞지 않는 기계다.

이런 배경에서 SOLIS는 스스로를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 빠져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내놓는 대답이며, 이 대답은 네 가지 필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지구와 기술을 서로 종속시키는 대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인간을 자연 위에, 기계를 인간 위에, 경제를 모든 것 위에 두지 않는 질서다. 둘째,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과 회복력과 공동의 안녕을 지향하는 질서가 필요하다. 자기 가능성의 토대를 먹어 치우는 성장은 진보가 아니다. 셋째, 윤리적 한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발명을 북돋우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인공지능에서 유전공학에 이르는 현재의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인간에게 봉사하게 하며, 인간을 그 도구들에 내맡기지 않는다. 넷째, 능력과 양심을 한데 모으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것도 강제나 돈이나 권력의 축적이 아니라 의미와 공동의 방향을 통해서다. 역사에서 가장 깊은 전환은 결코 기술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고, 언제나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운동이기도 했다.

이런 구상은 유토피아라는 반론이 쉽게 떠오른다. 그러나 이 구상은 더 나은 인류를 가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라는 통찰에 기대고 있다. 생태와 기술과 지정학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세계에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 가운데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SOLIS는 인간 경험 가운데 단단한 요소들, 곧 발명의 재능과 윤리의 깊이와 당장의 자기 것을 넘어 생각하는 능력 위에 서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질서로 엮는다.

갈림길에 선 인류

인류가 자기 운명에 대해 이토록 큰 힘을 가진 적은 없었다. 우리는 유전자를 바꾸고, 지구를 떠나고, 세계를 하나의 대화로 바꾸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규모로 자원을 쓰거나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낭떠러지 가까이 선 적도 없었다. 힘에서 얻은 만큼 지혜와 신중함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존 질서들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추상적인 진단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위기로 드러나며, 위기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무겁지만 그것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이 보인다.

생태 위기는 모든 사회의 물질적 전제와 관련되기에 가장 근본적이다. 자원이 다시 채워지는 속도보다 빨리 소비하고, 기후의 안정을 공짜 지참금처럼 다루는 경제 방식은 자기 존속의 조건을 허문다. 불안정해진 지구 위에서는 어떤 번영도 어떤 진보도 오래 지켜 낼 수 없다. 사회 위기는 재산과 기회의 집중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사회의 결속을 속부터 비워 낸다. 참여와 배제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진 곳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약속이 체감할 수 있는 토대를 잃고, 그와 함께 모든 질서를 떠받치는 신뢰도 잃는다. 기술 위기는 그 성격이 다르다. 수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바꾸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지털 시스템은 사람들이 무엇을 지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정한다. 이 시스템들이 오직 주의를 돈으로 바꾸는 데만 쓰이는 곳에서는 의식적 통제를 벗어나는 조용한 조종이 생겨난다.

정치 위기는 앞의 위기들에서 나온다. 제도가 더는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서 신뢰가 사라진다. 신뢰가 사라지는 곳에서

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덮어 버리는 단순한 대답들이 힘을 얻는다. 안정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권위주의 모델이 행동할 능력을 약속하기에 매력을 얻는다. 끝으로 의미의 위기는 가장 덜 보이지만 가장 깊이 작용한다. 인간을 무엇보다 소비자, 노동력, 데이터 점으로 대하는 질서는 잠재울 수 없는 물음 하나를 대답 없이 남겨 둔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충분한지, 무엇이 좋은지,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더는 알지 못한다. 소비가 의미를 대신하고, 오락이 숙고를 대신하고, 효율이 인간다움을 대신한다. 의미의 물음에 감당할 만한 대답이 없으면, 사회가 회복력을 길어 올리는 내면의 버팀목이 무너진다.

이 위기들은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기에 하나씩 따로, 차례로 풀 수 없다. 바로 여기에 한 덩어리로 짜인 구상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생태, 경제, 법, 교육, 문화, 기술을 저마다 따로 떨어진 부처처럼 다루는 질서는 진짜 문제가 놓인 접점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SOLIS는 개별 개혁에서 출발하지 않고 전체의 연관에서 출발한다.

다섯 가지 윤리적 토대

오래 가는 질서는 모두 법과 기술과 제도보다 더 깊은 곳에 놓인 토대가 필요하다. 그것들은 바뀌지만 토대는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그 토대는 콘크리트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치로 이루어진다. SOLIS에서는 다섯 가지 토대가 있다. 여기서 그것들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효력 있는 원칙

으로 도입된다. 그 하나하나가 특정한 질서를 배제하고 특정한 제도적 결과를 낳는다.

◆ 인간의 존엄

중심에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인 인간이 있다. 출신, 성별, 나이, 신념, 능력과 상관없이 그렇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결론은 나온다. 이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질서는 사람을 쓸모 있는 이와 쓸모없는 이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누구도 내버려서는 안 된다. 치매를 앓는 아흔 살의 여성은 짐이 아니다. 그는 돌봄을 받을 권리를 지닌 공동체의 일원이다. 난민은 비용 항목이 아니다. 그는 이야기와 아픔과 희망을 지닌 사람이다. 그 제도적 결과는 경력에 좌우되지 않는 기본 공급, 그리고 강한 이와 똑같이 약한 이를 지키는 법이다.

◆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인간은 홀로 싸우는 고립된 개인도 아니고, 집단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는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자라기 위한 자유와 번성하기 위한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개인이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안녕을 무너뜨리는 곳에서 끝난다. 공동체의 안녕은 개인의 존엄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이 균형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맞춰 가야 하는 살아 있는 춤이다. 그러려면 이 저울질을 한쪽으로 결정해 버리지 않고 바로 그 저울질을 해내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더 벌기 위해 환경 기준을 피해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 역시 참여와 대화와 존중 없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무엇이 모두에게 좋은지 정해서는 안 된다.

◆ 지구에 대한 책임

지구는 무대 배경도 원료 창고도 아니다. 모든 사회가 기대어 사는 생명의 터전이다.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살아 있는 체계다. 여기서 재생을 허락하는 이용, 생태계에 손댈 때의 최대한의 신중함, 그리고 자연적 토대의 보호를 곁가지가 아닌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의무가 나온다. 이 원칙은 도덕적 덧붙임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죽어 가는 지구 위에서는 어떤 체계도, 어떤 번영도, 어떤 진보도 존속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왜 SOLIS에서 자연적 토대가 사적 전유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왜 생명의 터전이 질서의 결정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얻는지를 뒷받침한다.

◆ 지식과 지혜의 증진

SOLIS는 결정을 권력이나 돈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윤리적 판단과 결합된, 얻을 수 있는 가장 나은 앎 위에 세운다. 윤리 없는 지식은 파괴적일 수 있고, 지식 없는 권력은 눈이 멀었다.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끊임없는 연구, 가정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일, 지식에 대한 열린 접근의 의무가 나온다. 그리고 영리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통찰이 나온다. 여러 세대에 걸친 결과를 헤아리는 멀리 보는 눈과,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 둘을 합쳐 우리는 지혜라고 부른다.

◆ 장기적 회복력

질서의 가치는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SOLIS는 회복력 위에 지어져 있다.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기에 배울 줄 안다. 분산되어 조직되기에 강하다. 그리고 되먹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 적응할 줄 안다. 전염병을 무너지지 않고 견뎌 내는 보건 체계. 한 부분이 멈추면 다른 부분들이 받쳐

주는 에너지망. 거짓말이 효과를 내기 전에 알아차리는 공론장. 회복력은 이런 모습이다. 생태적, 지정학적,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에서 이 질서는 버텨 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련에서 더 강해져 나와야 한다.

이 다섯 가지 토대는 뒤따르는 모든 장을 잴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그것들은 개별 결정의 방향을 잡아 주는 나침반이며, 동시에 수많은 개별 규정이 누더기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제도를 위한 규칙 이상의 것이다. 사람들이 자라 들어갈 수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말과 행동의 진실함,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약한 이의 보호, 그리고 다른 이의 자유를 나 자신의 자유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일. 우리는 카드로 집을 짓지 않는다. 백 년 뒤에도, 오백 년 뒤에도 무게를 견딜 토대를 짓는다. 자라고, 배우고, 실패하고, 새로워지며,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 있는 체계다.

좁은 핵과 넓은 자유

처음부터 한 가지 오해를 걷어 내야 한다. SOLIS가 협상할 수 없는 다섯 가지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 처방한다는 뜻은 아니다. 토대는 좁고 단단한 핵이다. 그 위에는 큰 자유가 펼쳐져 있다. 의미와 행복과 충만이 무엇이며 어떤 길이 그리로 이끄는지는 질서가 정하지 않고,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스스로 정한다. 이것까지 정하는 질서는 더는 틀이 아니라 스스로 법의 자리에 오른 세계관일 것이다. 그래서 SOLIS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과 저마다에게 속하는 것을 엄격히 나눈다. 협상할 수 없는 것의 좁은 바닥, 그리고 그 위에 서로 다른 것

들의 넓은 공간. 이 구분은 문화에서 세계 질서에 이르기까지 책 전체에서 되풀이되며, SOLIS가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 책의 방법과 구성

이 책이 내건 목표는 특정한 방법을 요구한다. 개별 영역을 펼치기 전에 그 방법을 밝혀 두는 것이 좋다.

첫째 원칙은 원리와 제도의 결합이다. 검증할 수 있는 규칙, 절차, 기관으로 옮겨지지 않은 가치는 아무 결과도 낳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은 바람직한 상태를 묘사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만큼, 그 상태가 지속되게 하는 장치를 밝힌다. 바로 일부 참여자가 질서를 악용하려 드는 경우를 위해서다. 그러니 원리가 도입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물어야 한다. 둘째 원칙은 질서를 질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 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물음은 시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느냐다. SOLIS는 스스로는 통제받지 않는 최고 통제 기관으로 이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 같은 원칙을 자기 제도에 적용한다. 투명성, 권력의 분립, 시민 전체에 대한 귀속, 장악에 대한 보호. 이 생각이 권력의 질서를 다루는 장을 떠받치고, 책 전체에서 되풀이된다. 셋째 원칙은 자기 구상에 대한 정직함이다. 어떤 해법이 근사치에 지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다고 말한다. 어떤 길이 실패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위험을 밝힌다.

이 바탕 위에서 구성이 펼쳐진다. 이 첫 장은 윤리적 토대를 놓는다. 둘째 장은 권력의 질서를 그린다. 기본권, 제도의 고리, 그

리고 공론장이다. 셋째 장은 법을, 넷째 장은 안전과 방위와 평화를, 다섯째 장은 경제와 자원을, 여섯째 장은 지구를 다룬다. 이어서 교육과 지식, 건강과 안녕, 문화와 의미, 그리고 기술과 인공지능과 더 큰 연관 속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자리가 뒤따른다. 열한째 장은 모든 지속적 변화가 기대는 토대로서 아이와 가족을 다루고, 열두째 장은 기존의 것에서 이 질서로 가는 길을, 열셋째 장은 세계에 대한 SOLIS의 관계를 다룬다. 마지막 장은 토대와 구성 요소를 요약하고 앞을 내다본다.

둘째 장부터 열셋째 장까지는 마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함께 걸어간다. 그는 지어낸 인물이고, 그가 사는 강가의 도시도 지어낸 곳이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책이 구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장의 첫머리에 서 있다. 이 질서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다.

각 영역은 서로를 딛고 쌓이지만, 저마다 따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도 있고, 필요한 곳을 골라 읽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순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환경에서, 어떤 이는 교육에서, 어떤 이는 의미의 물음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책은 뼈대가 아니라 그물이며, 그럼에도 끝에 가서는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 마음을 달래려는 글이 아니다. 논쟁을 위한 구상이며,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단단한 질서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이를 위해 쓰였다.

장

02



사회와 권력의 질서

편지는 화요일에 왔다. 마흔한 살, 강과 강변을 맡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수리 기술자 마라는 추첨으로 1년 동안 지역 의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한 번도 공직을 바란 적이 없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다. 첫 회의 날 그는 선거로 뽑힌 농부와 추첨으로 뽑힌 요리사 사이에 앉았고, 그들 앞에는 읽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지역 예산안이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미 두 해째인 요리사가 말했다. "이해될 때까지 묻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그 때문이에요."

기본권과 그 사이의 저울질



OLIS의 중심에는 이중의 약속이 있다. 당신은 자유롭고, 보호받는다. 당신을 짓누르지도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당연하게 들리지만, 기존 질서들은 바로 여기서 자주 실패한다. 그 질서들은 종이 위에서는 완전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텅 비어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학교가 무너져 가는 곳의 교육받을 권리, 재산에 좌우되는 건강할 권리, 경제적 힘이나 알고리즘의 힘에 입이 막히는 표현의 자유가 그렇다. SOLIS는 여기서 원칙적인 결론을 끌어낸다. 권리는 그것을 실제로 지켜 주는 장치만큼만 강하다. 선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잴 수 있고, 법정에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SOLIS가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생명권과 몸과 마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의견과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동과 집회와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여기에 존엄한 삶의 물질적 토대에 대한 보장된 접근이 더해진다. 물, 먹을거리, 주거, 에너지, 교육, 건강, 참여다. 이 마지막 보장은 시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자유의 조건이다. 굶어 죽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며, 돈이 없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다. 인간을 넘어 SOLIS는 자연적 생명의 터전에도 고유한 보호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이 어떻게 효력을 얻는지는 지구를 다루는 장에서 펼쳐진다.

이 권리들이 추상에 머물지 않도록, 권리는 절차와 기관 안에 뿌리내리고 그 실제 상태는 끊임없이 조사된다. 기본권의 관찰은 이 장에서 곧 소개할 독립적인 투명성 및 심사 기구의 과제다. 이

기구는 사람들의 실제 자유와 존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잰다. 법조문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다. 특정 집단이 체계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렇게 권리의 보장은 그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의무를 함께 담는다.

◆ 절대적 바닥과 저울질의 절차

가장 어려운 경우는 한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두 권리의 충돌이다. 여기서는 현명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에 맡기자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은 실제 결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재량으로 옮겨 놓을 뿐이기 때문이다. SOLIS는 그 재량을 단단한 한계를 지닌 절차로 대신한다. 맨 먼저 절대적인 바닥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몸과 마음의 불가침성은 저울질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문턱을 이루며, 그 아래에서는 어떤 재화도 다른 재화와 맞바꾸어 계산되지 않는다. 어떤 공익의 논리도, 어떤 효율의 이득도 그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 문턱 위에서는 정해진 비례성의 잣대에 따라 충돌을 판정한다. 권리를 제한하려는 쪽이 논증의 부담을 지며, 권리를 제한당할 쪽이 지지 않는다. 언제나 효과가 있는 가장 온건한 수단을 골라야 한다. 결정은 공개적으로 근거를 밝혀야 하고, 윤리 평의회와 사법의 심사를 받으며, 선례로 기록되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같게 다뤄지게 한다. 이렇게 저울질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단단한 바닥과 분명한 입증 책임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따라갈 수 있는 절차가 된다.

권력의 질서: 고리

모든 지배 형태의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다. 권력은 스스로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권력은 돈과 영향력과 연줄을 끌어당긴다. 이해관계가 서로를 덮어 주는 닫힌 집단을 만든다. 끝내 제도의 온전함과 시민의 신뢰, 그리고 길게 내다보며 행동하는 사회의 능력이 상처를 입는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 놓기만 하는 질서는 오래 갈 수 없다.

◆ 왜 현자의 지배는 실패하는가

쉽게 떠오르는 대답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청렴한 이들을 꼭대기에 세우자는 것이다. 지혜와 삶의 업적과 성품의 굳건함을 꼼꼼히 가리는 절차로 고른 이들 말이다. 이 대답은 매혹적이며, 역사는 이미 그것을 반박했다. 플라톤의 철인왕, 중국의 관료제, 레닌주의 전위. 이 구상들은 모두 가장 뛰어난 이들을 고르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해 권력의 집중으로 끝났다. 원인은 개인들의 실패에 있지 않다. 구조적 약점에 있다. 지혜와 청렴은 객관적으로 잴 수 없다. 질서가 그것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 곳에서는 선발 절차 자체가 가장 값진 재화가 되고, 그래서 장악의 표적이 된다. 거름망을 쥔 자가 체계를 쥔다. 그러므로 "그냥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요구는 권력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것을 더 통제하기 어려운 자리로 옮길 뿐이다.

SOLIS는 여기서 분명한 결론을 끌어낸다. 지도 기구를 더 아름답게 묘사하는 대신, 질서 스스로가 짚어 낸 그 역학에 맞서는 단단한 장치가 들어서야 한다. 그 장치는 꼭대기가 없다는 데 있다.

◆ 꼭대기 대신 고리

SOLIS에서는 꼭대기에 대통령도 군주도, 정당도 계산기도 서 있지 않다. 권력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고리로 지어져 있다. 서로를 심사하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최종 심급이 아닌 기관들의 원이다. 이 원 안에 묶인 사람을 이 책은 '고리에 매인' 사람이라 부른다. 새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새로운 말이다. 묶여 있고, 서로 얽매여 있으며, 위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의회는 규칙이 생겨나는 곳이다. 질서의 모든 층위, 이웃과 지역과 나라에서 의회는 자기 영역의 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의회는 섞여서 구성된다. 한쪽은 자기 제안과 공개된 연고에 책임을 지는 선출된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추첨이 정한 시민들이다. 선출된 부분은 강령과 책임을 가져온다. 추첨된 부분은 사회를 그 폭 그대로 회의장에 들이고, 선거마다 생겨나는 담합을 깨뜨린다. 어떤 집단도 혼자서는 의회를 움직일 수 없다. 추첨이 채우는 부분을 사들일 수도, 미리 제 편으로 끌어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임기가 정해진 관직은 의회가 의결한 것을 집행한다. 관리하고, 짓고, 공급하고, 조직한다. 그 책임자는 열린 절차에서 적격성에 따라 임명되며, 임기가 정해져 있고, 바뀌며, 보고 책임을 진다. 어떤 관직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관직은 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현자 평의회는 이 기관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정점은 아니다. 그 과제는 장기적이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방향 제시, 곧 하루하루의 물음을 넘어서는 생각이며, 이것이 다른 기관들에 구상과 저울질을 내놓는다. 평의회는 조언하고, 구상하고, 경고한다. 명령하지 않으며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그 힘은 판단에 있지 손에 쥔 권한에 있지 않다.

윤리 평의회는 모든 층위에서 토대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활동한다. 법안과 영향이 큰 결정을 법적, 경제적 정합성만이 아니

라 다섯 가지 토대와 양립하는지까지 심사한다. 학문, 철학, 예술, 돌봄, 수공업, 그리고 평소에는 목소리가 묻히는 집단에서 사람들이 고루 참여하며, 강한 심사권과 집행을 늦추는 거부권을 가진다. 질서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흐름을 멈춰 세우고, 그 사안을 의회와 시민 전체에게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무제한의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다.

사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구속력 있게 법을 적용한다. 결정적인 점은 그것을 고리의 다른 기관들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관직도, 어떤 제도도 법 위에 서지 않는다.

끝으로 투명성 및 심사 기구는 고리가 작동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토대, 곧 정보에 대한 열린 접근을 지킨다. 결정과 자금의 흐름과 이해충돌을 따라가 볼 수 있게 하고, 기본권의 상태를 지켜보며, 한 기관이 지식을 혼자 쥐어 다른 기관들의 눈을 가리는 일을 막는다.

이 기관들은 원을 따라 서로를 통제한다. 의회가 의결하지만 윤리 평의회가 멈춰 세울 수 있다. 관직이 집행하지만 사법이 그것을 구속한다. 현자 평의회가 구상하지만 결정하지는 않는다. 심사 기구는 모든 것을 보지만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 어느 것도 다른 것들 없이 행동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다른 것들 위에 서지 않으며, 통제의 사슬이 끝나는 자리가 없다. 피라미드와의 단절이 바로 여기에 있다. 꼭대기가 없는 곳에는 장악의 최고 표적도 없다.

◆ 층위와 보충성

고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질서는 층위로 지어져 있다. 이웃에서 도시와 지역을 거쳐 나라에 이르고, 세계 질서를 다루는 장에서 이야기할 행성 층위에까지 이른다. 각 층위는 그 자체로 의회, 관직, 윤리 평의회, 사법, 심사 기구를 갖춘 하나의 고리다. 층위 사이에는 엄격한 형태의 보충성이 적용된다. 위 층위

는 아래 층위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만 할 수 있다. 결정은 사람과 사안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내려지고, 권력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놀이터는 이웃의 일이고, 정수장은 지역의 일이며, 기후 목표는 나라들의 연합의 일이다.

◆ 바깥의 닻인 시민 전체

제 안에서만 도는 고리는 닫힌 체계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고리는 아래로 국민 안에 닻을 내린다. 시민 전체는 제도의 원 바깥에 놓인 단 하나의 매듭이며,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쥐고 있다. 시민 전체는 고리의 기관들을 해임하고,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자 평의회와 다른 기구의 구성원들은 철회할 수 있는 위임에 따라 일한다. 그 권한은 빌린 것이지 가진 것이 아니다. SOLIS에서 권력은 상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다.

시민 전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의회에 맡기는 것은 정확히 정해져 있어, 어느 쪽도 끝없이 불어나지 않는다. 시민 전체에 직접 속하는 것은 네 가지다. 질서 자체의 채택, 그 핵을 건드리는 모든 일, 그 기관들의 해임과 재구성, 그리고 의회가 회부하거나 충분한 지지를 얻은 청원이 끌어온 물음이다. 그 밖의 모든 것, 곧 법과 예산과 사업과 질서의 일상은 의회가 결정하며, 어차피 그 의회에는 추첨을 통해 시민 전체가 직접 앉아 있다. 그래서 국민의 권력은 뿌리로 남되, 수도관 하나하나가 국민투표에 부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SOLIS가 분명히 피하는 위험이 있다. 순수한 직접적 다수의 권력은 질서가 처음부터 물리친 바로 그 힘들을 되불러올 것이다. 포퓰리즘, 조작, 반향실, 방향 없는 목소리의 소란이다. SOLIS는 이에 대한 대답을 이미 품고 있다. 시민 전체의 권력은 날것의 투표로 행사되지 않고, 숙의형 참여 체계를 통해 짜임새를 얻는다. 정보를 갖추고, 사실에 바탕을 두며, 조작으로부터 보호된다. 시민 전체가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은 검증되고

다양한 정보의 바탕, 전문 포럼에 대한 접근, 윤리적 저울질을 돕는 수단을 얻는다.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결정한다. 그래서 국민의 권력은 정당성의 뿌리로 남되 포퓰리즘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이렇게 따로는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한데 맞물린다. 권력은 꼭대기 없는 고리이고, 고리는 국민 안에 접지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력은 숙의의 거름망을 거친다. 이것이 질서를 질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다. SOLIS는 사회가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는 바로 그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린다.

◆ 장악에 맞서는 장치

이것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장치로 남도록, 고리는 네 가지 구체적 구성 요소에 기대고 있다.

첫째는 추첨이다. 의회와 통제 기구의 일부는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고, 고대의 불레와 배심원단을 본떠 시민 가운데서 추첨으로 돌아가며 채워진다. 추첨은 미리 매수할 수 없다. 추첨 위에는 경력을 쌓을 수 없다. 추첨에서는 안정된 담합이 생겨날 수 없다. 추첨은 체계 안의 매수되지 않는 요소다.

둘째는 임기 제한을 둔 강제 순환이다. 권력은 한자리에 눌러앉지 않고 여러 손을 거쳐 지나간다. 누구도 한자리를 제 것으로 만들 만큼 오래 머물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굳어 버리지 않는다.

셋째는 해임과 재구성의 권리다. 현자 평의회와 다른 모든 기관은 짜임새 있고 정보를 갖춘 시민 전체의 다수에 의해 해산되고 새로 구성될 수 있다. 파수꾼은 그 위임이 유효한 동안만 일하며, 그보다 오래 일하지 않는다.

넷째는 정보에 대한 권한과 결정 권력의 분리다. 어떤 기관도 무엇이 알려질지를 정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및 심사 기구는 지식의 바탕이 공유되고 열려 있

도록 하여, 어떤 매듭도 정보의 독점으로 다른 매듭들을 지배할 수 없게 한다.

◆ 추첨과 전문 지식

반론이 쉽게 떠오른다. 우연히 뽑힌 시민이 어떻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판단한단 말인가. 대답은 추첨이 맡는 과제에 있다. 추첨은 전문 업무가 아니라 통제를 채운다.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수술을 이끌라고 추첨으로 뽑히는 사람은 없다. 운영하고 이끄는 이들이 정직하게, 비례에 맞게, 토대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추첨으로 뽑힌다. 그러려면 전공 학위가 아니라 판단력과 시간과 좋은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는 심사 기구가 책임진다. 심사 기구는 추첨으로 뽑힌 모든 기구에 서로 반박해도 되는 여러 갈래의 전문가를 붙여 준다. 뽑힌 사람은 복무하는 동안 일에서 놓여나며, 그 복무는 기여로 인정된다.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강요하는 추첨은 그 존엄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우연은 아마추어리즘이 되지 않고, 배심원단에서 수백 년 동안 그래 왔듯이 매수되지 않는 공동체의 눈이 된다.

◆ 현자 평의회의 선출

이 구성 요소들에서 현자의 지배가 걸려 넘어지는 물음에 대한 대답도 나온다. 숨겨진 지혜의 거름망이 장악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면서 현자 평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SOLIS는 닫힌 절차에서 후보자의 지혜를 판정하는 기구를 두지 않는다. 그 자리에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열린 절차가 들어선다. 후보는 널리 추천받고 공개적으로 검증된다. 그것도 공개되어 다툴 수 있는 잣대, 곧 입증할 수 있는 판단, 삶의 업적, 증명된 책임 능력에 따라서이지, 불투명한 '지혜' 점수에 따라서가 아니다. 이 절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추첨으로 정한 시민

기구다. 그 기구는 스스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매수할 수 없다. 헌법 제정의 최종 권력과 해임의 권리는 시민 전체에게 남는다. 임기는 제한되어 있고, 위임은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는 단 한 번에 영원히 공인되지 않는다. 평의회는 언제나 책임을 지며,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

◆ 시간에 쫓기는 결정

숙의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 시간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전염병, 둑의 붕괴, 전력망에 대한 공격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결정을 요구한다. 여기에 모든 질서가 빠지는 유혹이 도사린다. 위급함을 내세워 규칙 위에 서는 권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런 권한이 좀처럼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래서 SOLIS는 예외를 스스로 끝나도록 짓는다. 비상 권한은 가능하지만, 좁게 한정되고, 공개되며, 기한이 정해지고, 의회의 새 의결 없이는 연장되지 않는 만료일을 지닌다. 일부를 추첨으로 채운 기구가 모든 조치를 사후에 심사하고, 위급할 때 세운 모든 것은 해체할 의무를 진다. 질서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빠를 수 있다. 빠름에는 시작할 때 이미 정해진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안전을 다루는 장에서 설명한다.

◆ 잘못할 수 있는 사람들과도 견디는 질서

권력 질서의 결정적인 시금석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잘못할 수 있고 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과 함께여도 공정함을 잃지 않느냐다. 고리는 바로 이 가정 위에 지어져 있다. 고리는 공직자가 지혜롭고 사심이 없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도 오래 눌러앉을 수 없기만을 요구한다. 꼭대기가 없는 원, 그 기구들이 일부 추첨으로 채워지고, 바뀌고, 해임될 수 있고, 열린 정보 아래 놓인 원은 몇몇이 그것을 악용하려 들어도

바로잡을 수 있는 상태로 남는다. 이때도 책임은 각 개인에게 남는다.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공개된 근거와 함께, 다른 누구와도 똑같이 자신을 구속하는 사법 앞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SOLIS는 더 나은 사람을 바라는 희망으로 권력의 물음을 풀지 않는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유혹을 견뎌 내는 구조로 푼다. 바로 이것이 단단한 구상과 한낱 비전을 가른다.

공론장, 미디어, 그리고 해석의 주도권이라는 물음

사회가 무너지는 곳에서는 대개 그 붕괴에 앞서 하나의 상실이 있다. 현실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잃는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책임 있는 공론장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야 할지 더는 알지 못한다. 권력 엘리트가 아무 통제 없이 이야기를 정하고, 사실은 무기가 되며, 시민들은 무관심이나 광신으로 빠져든다. SOLIS는 여기에 맞서 법적인 의미에서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뒷받침되고, 투명하고, 다양하고,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미디어 질서를 세운다.

이 질서는 두 가지 잘못된 형태 사이에 서서 둘 다 피한다. 권위주의 체계에서 미디어는 조종의 도구가 된다. 오직 이윤이 움직이는 체계에서 미디어는 주의를 돈으로 바꾸는 기계가 되어, 시청률을 내용 위에, 분열을 이해 위에 둔다. 그리고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알고리즘으로 무엇이 지각될지를 정하는 여론의 독점이 생겨난다. 그래서 SOLIS에는 국가가 조종하는 미디어도, 이윤 극대화만을 좇는 시장도 없다. 미디어 조직은 검증할 수 있는 윤리 강령에 따라 일한다. 그 소유 구조와 자금 흐름과 이해충돌

은 공개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미디어가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책임을 질 때에야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열린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물음이 떠오르며, SOLIS는 그것을 피해 가지 않는다. 자유로운 공론장은 공동의 결정을 허무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와 조작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거짓으로 여길지 정할 수 있는 모든 자리는 그 자체로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역사에서 권위주의가 슬그머니 스며든 관문이 된다. 그러니 대답은 참과 거짓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진리부에 있을 수 없고, 오직 절차에 있을 수 있다.

이 절차는 몇 가지 원칙에 기댄다. 국가의 사전 검열은 없다. 거짓되거나 해로운 발언에 대한 기본 대응은 삭제가 아니라 반론과 맥락 설명과 표시다. 그럼에도 개입을 검토할 때는 대립 당사자 절차를 따른다. 일부를 추첨으로 채운 심사 기구가 결정하고, 입증 책임은 무언가가 거짓이거나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으며, 근거는 공개되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모든 것 위에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절차는 SOLIS 자체와 그 제도와 그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치적 반대는 무조건 보호된다. 바로 이 한계가, 조작을 막는 데 필요한 방어가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바뀌는 것을 막는다.

투명성은 미디어만이 아니라 질서의 기관들과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정과 자금의 흐름과 이해충돌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영향력 행사의 등록부는 의무이고 공개되며, 시민들은 누가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정이 어떤 데이터에 바탕을 두었는지, 어떤 대안이 검토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끝으로 오늘날 대화의 중심 무대인 디지털 플랫폼은 순전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민주적 기반 시설의 일부로 다뤄진다. 그 알고리즘은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목소리도 공정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플랫폼 역시 앞서 말한 절차와 보호의 한계를 따른다.

그러나 가장 깊은 보호 장치는 개입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육에 있다. 어려서부터 출처를 확인하고, 관점을 비교하고, 조작을 알아보도록 배운 사람들은 공론장의 왜곡에 맞서는 가장 강한 방어이며, 개입하는 모든 기관을 가능한 한 필요 없게 만든다. 그래서 미디어 질서의 목표는 정보의 완전한 통제가 아니다. 그 목표는 조작당하지 않고, 비판적이고 당당하게 판단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툴 줄 알고, 굴복하지 않고 들을 줄 아는 성숙한 사회다.

◆ 파수꾼과 계기

질서가 자기 상태를 재는 잣대에는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기본권의 보호는 관찰할 수 있지만, 목표가 된 지표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 의미를 잃는다. 숫자가 질서의 안녕을 좌우하는 곳에서는 사안 대신 숫자를 맞추려는 유혹이 커진다. 그러면 공동화는 공공연한 공격이 아니라 소리 없이 일어나고, 그동안 계기판은 계속 건강하다고 알린다. SOLIS는 이에 이중으로 대응한다. 잣대 자체가 바뀌고, 대립하는 관점에서 정해지며, 일부러 의심받는다. 그리고 잴 수 있는 관찰 옆에,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시민 중심의 심사가 선다. 그렇게 파수꾼만이 아니라 계기도 감시받는다.

질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배우는 질서가 자신을 잃지 않고 바뀌려면, 자기 규칙을 바꾸는 정해진 방식이 필요하다. SOLIS는 이를 위해 두 층위를 구분한다. 핵, 곧 다섯 가지 토대와 기본권과 장악을 막는 주요 안전장

치는 정치의 일상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의회도 어떤 관직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오직 시민 전체만이 그것을 건드릴 수 있으며, 그것도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한다. 큰 다수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과 확인 사이에 시간을 두고, 한 세대를 넘는 기간에 걸쳐서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의회와 숙의형 참여 체계를 통해 더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렇게 따로는 실패하는 것들이 결합한다. 그것 없이는 질서가 굳어 버리는 유연함과, 그것 없이는 질서가 자신을 내주고 마는 단단함이다.

◆ 떠날 권리

이 책이 시민 전체에게 믿고 맡기는 성숙함에는 질서를 안에서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그것을 떠날 권리도 포함된다. 다섯 가지 토대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남아 있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떠날 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안전장치다. 떠나도 되는 질서는 출구를 잠가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 내는 것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 권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렛대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세계 질서를 다루는 장에서 다룬다.

장

03



법과 정의

마라의 집 아래 작업장 소음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부엌 식탁에서, 이웃에서 온 중재인과 작업 시간 계획과 목수가 방음재를 댄 문 하나로 끝났다. 두 해 뒤 마라는 옆자리의 요리사처럼 추첨으로 뽑혀 직접 재판부에 앉았다. 한 남자가 자기 사업체에서 무시당했다는 분노로 창고에 불을 질렀다. 그는 갇히지 않았다. 그는 1년 동안 창고를 함께 다시 지었고, 그날 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비원을 알게 되었다.



서는 그것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그것을 어기는 이들에게서 제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불의를 다루는 일은 법의 변두리가 아니라 법의 진짜 시험대다. 사회의 원칙이 불편해질 때도 유효한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많은 기존 체계에서 사람들은 사법을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관료적이며, 돈과 영향력에 좌우되고, 회복이 아니라 처벌을 향한 것으로 겪는다. 재판은 몇 해씩 이어지고, 끝에 가서는 패자만 남긴다. SOLIS는 불의의 물음에 보복의 반사 작용으로 답하지 않는다. 보호하고, 회복하며, 존엄을 해친 사람의 존엄까지 지키는 법으로 답한다.

윤리와 법의 이중 구조

사회는 그 법만큼만 공정하다. 가치는 방향을 정한다.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제도가 없으면 가치는 이론으로 남는다. 그래서 SOLIS는 윤리와 법을 고리 안에 이미 마련된 이중 구조로 묶는다. 윤리 평의회는 법과 영향이 큰 결정이 다섯 가지 토대와 양립하는지 심사하고, 그에 어긋나는 것을 멈춰 세운다. 사법은 규칙을 모두에게 똑같이 구속력 있게 적용한다. 한쪽은 법이 좋은지를 묻고, 다른 쪽은 법이 지켜지는지를 묻는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는다. 법은 토대를 구체화하는 데 쓰인다. 법은 결코 토대를 대신해서도, 비틀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올바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뒷받침되며, 권력이 아니라 균형을 중심에 두는 질서가 생겨난다.

누구나 이해하는 법

SOLIS의 법은 다가갈 수 있다. 전문가만 풀 수 있는 비밀 암호여서는 안 된다. 핵심 규칙과 권리와 절차는 분명한 말로 마련되어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며, 디지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툼에 휘말린 사람은 오래 찾지 않아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안다. 법률 조력은 재산과 상관없이 보장된다. 게다가 SOLIS의 법은 투명하다. 어떤 판결도 공개된 근거 없이 내려지지 않고, 어떤 절차도 검증할 수 있는 잣대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밝혀, 당사자들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자의나 숨은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만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복의 한계

불의에 대해 쉽게 떠오르는 대답은 보복이다. 해를 끼친 사람은 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복은 오래되었고 이해할 만하지만, 거기서 그친다. 보복받은 행위는 이미 일어난 일로 남고, 피해자의 상실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으며, 벌을 받은 사람은 겪은 가혹함만큼 더 무거워진 채 그 행위가 자라난 바로 그 환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직 처벌에서 안전을 끌어내는 질서는 평온이 아니라 되풀이를 낳는다. 넘쳐나는 교정 시설, 높은 재범률,

범죄와 수감 사이를 오가는 집단 전체다. 여기서 SOLIS는 냉철한 원칙 하나를 끌어낸다. 처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오직 그것이 이루어 내는 것으로만 정당화된다.

회복적 정의

보복의 자리를 회복적 정의가 차지한다. 그 잣대는 가해진 고통이 아니라 치유된 고통이며, 그것은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좇는다. 첫째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다. 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곳에서는 바로잡는 일이 우선하며, 피해자는 상징적인 판결 대신 실제의 보상을 받는다. 둘째는 가해자의 복귀다. 행위가 궁핍이나 중독이나 질병에서 비롯된 곳에서는 제재와 함께 그 원인을 없애는 일이 따른다. 원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되풀이를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다른 이들의 보호다. 자유의 박탈은 심각한 위험을 지닌 이들에 대한 수단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 역시 복수가 아니라 안전과 복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처벌은 그 가혹함이 아니라 그 효과로 잰다.

해를 끼친 사람을 그저 가둬 두지 않는다. 그를 자기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를 바로잡는 일에 함께하게 하는 과정 안에 들인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 그를 이해하며 수리를 함께 떠맡게 하는 프로그램에 들인다. 생태 기준을 어긴 기업은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피해를 입은 공동체와 함께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억압적인 처벌은 흔히 증상만 다룬다. SOLIS는 원인을 겨냥한다. 오래 가는 효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절차와 법 앞의 평등

법이 자의로 뒤집히지 않도록, 법은 어떤 편의에도 물러서지 않는 절차의 보장 위에 서 있다. 무죄 추정, 기소하는 쪽의 입증 책임, 그리고 변호와 진술과 독립적 심사를 받을 권리다. 억울하게 고발된 사람은 빈틈없는 보호와 조력을 받는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SOLIS를 모든 지배의 사법과 가르는 원칙이다.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고리의 기관들에도 적용된다. 사법은 현자 평의회, 윤리 평의회, 의회, 그리고 모든 공직자에게 모든 시민에게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어떤 관직도, 어떤 제도도 법 위에 서지 않는다. 힘 있는 자를 봐주는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도구다.

토대에 대한 열린 해석

다섯 가지 토대는 질서의 협상할 수 없는 핵을 이룬다. 개별 사안에서의 그 적용은 그렇지 않다. 두 존엄이 부딪칠 때 존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혹은 지구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자유에 맞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해석에서 정해지고, 해석은 권력이다. 그래서 SOLIS는 해석을 어떤 닫힌 해석자 집단에도 맡기지 않는다. 토대에 관한 재판은 열려 있고 대립 당사자 방식으로 짜여 있다. 어려운 사안은 서로 다투는 쪽의 대리인들이 일부 추첨으로 채운 재판부 앞에서 다룬다. 모든 결정은 공개적으로 근거를 밝히고, 반대 의견도 함께 공개되며, 선례는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남는다. 가장 원칙적인 물음에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 기구가 함께

해, 핵의 해석이 시민 전체에게 뿌리내린 채로 남게 한다. 그래서 토대는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읽기는 검증할 수 있다. 누구도 마지막으로 토대를 처분하지 못한다.

시민 사이의 다툼

모든 불의가 범죄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갈등이다. 질서가 모든 다툼을 곧장 법정으로 몰아가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법원을 공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SOLIS의 법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빠르게, 당사자의 재산과 상관없이 중재와 대화가 있다. 훈련받은 중재인이 긴장을 일찍 알아차리고 합의를 돕는다. 이웃 사이의 소음, 쓰레기, 문화 사이의 오해를 둘러싼 다툼은 고소로 번지기 전에 조정된다. 합의가 실패하거나 권리가 원칙적으로 침해된 곳에서야 법원이 결정하고, 질서 자체에 관한 물음은 최종 심급이 결정한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갈등을 억누르거나 힘으로 해결하는 대신 말로 꺼내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법은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남고, 다툼은 승자와 패자보다는 오래 가는 해결로 끝나는 일이 더 많다.

누가 재판하는가

이 체계를 떠받치는 것은 경력이나 권력의 논리로 올라가지 않는 판사와 중재인이다. 그들은 열린 절차에서 적격성에 따라 임명되고, 전문적, 윤리적, 심리적으로 꼼꼼한 검증을 거치며, 끊

임없이 배우고, 윤리 평의회와 일부 추첨으로 채운 기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받는다. 그들의 독립성은 보호된다. 어떤 관직도 어떤 의회도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한자리에 평생 앉아 있지 않는다. 그들은 법원과 층위를 옮겨 다니고, 재판장 자리는 기한이 있으며, 그들의 일은 공개적으로 심사받는다. 재판부에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함께 해, 법이 한 신분의 일이 되지 않고 공동체의 판단으로 남게 한다. 법체계는 그것을 적용하는 이들의 청렴과 판단력과 공감만큼만 강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 위에 법과 권력의 질서를 잇는 원칙이 있다. 누구도 법 위에 서지 않는다. 어떤 공직자도, 어떤 제도도, 현자 평의회도 윤리 평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법은 힘 있는 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한 자의 방패다. 재산으로 죄를 사는 계급 사법도, 근거 없는 불투명한 절차도,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법도 없다.

강제의 한계

그 모든 것 위에 죄를 지은 사람도 잃지 않는 한계가 있다. 어떤 처벌도 인간의 존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고문도, 모욕적인 대우도, 사람을 영원히 공동체에서 내쫓는 처벌도 없다. 모든 제재는 비례에 맞고, 기한이 있으며, 검증할 수 있고, 복귀를 향한다. 이 한계는 관용의 양보가 아니라 토대에서 나온 결과다. 첫째 토대에서 아무런 조건도 알지 못하는 존엄은 죄라는 조건도 알지 못한다.

장

04



안전, 방위, 평화

강물이 불어난 밤, 도시의 모든 화면에 같은 표시가 떴다. 경계 강화, 열한 시 십 분 발령, 세 문장으로 된 근거, 수요일까지 유효. 마라는 재난 구조대와 함께 제방에 서 있었다. 남편 요나스는 요양원에서 자기 팀과 함께 침대를 위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수요일에 수위가 내려가자 그 단계는 누가 끝낼 필요도 없이 저절로 만료되었다. 그 밤에 필요했던 권한은 목요일이 되자 다시 사라졌고, 추첨으로 뽑힌 기구가 보고서를 읽었다.

모든 질서는 결국 많은 구상이 비켜 가는 한 가지 물음 위에 서 있다. 누가 강제력을 쥐는가. 막스 베버 이후로 국가는 정당한 강제력의 독점을 주장하는 심급이다. 이 독점, 곧 경찰과 국방과 최후의 강제를 지휘하는 자는 다른 기관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정돈되어 있어도 마지막 심급에서 나머지 모든 것을 지배한다. 권력은 나누면서 강제력은 나누지 않는 고리는 겉치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장의 원칙이 나온다. 안전은 질서의 예외가 아니라 질서의 가장 날카로운 적용이다.

누가 칼을 쥐는가

유혹은 안전의 이름으로 규칙 위에 서는 심급을 만드는 데 있다. 비상시를 위해, 모두를 지키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역사에서 거의 모든 자유가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한번 넘겨준 비상 권한은 좀처럼 되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폭풍을 견디라고 만든 권력은 폭풍보다 오래 남는다. SOLIS는 여기서 강제력이 통제를 벗어나는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누가 파수꾼을 지키느냐는 오래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도 더 높은 파수꾼이 아니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누구도 눌러앉을 수 없는 구조다.

고리에 매인 강제력 기구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정치권력을 묶듯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강제력을 묶는다. 첫째, 일부 추첨으로 채운 기구에 의한 민간의 감독이다. 무장한 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이들이 아니라 시민 전체이며, 안보 병력의 지휘부는 의회 옆이 아니라 의회 아래에 있다. 둘째, 지휘권의 순환과 관직의 기한이다. 강제력 주위에 오래 가는 담합도, 개인적 추종 집단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셋째, 명령과 집행, 그리고 지시와 심사의 분리다. 강제력의 사용을 명령하는 사람이 그 적법성을 함께 판정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모든 출동, 모든 지시, 모든 조달을 빠짐없이 따라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기와 장비는 숨은 영향력 없이 장부를 펼친 열린 절차로 조달하며, 강제력에 쓰이는 어떤 것도 어둠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 구성 요소들 위에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질서의 강제력은 결코 안으로 정치적 반대를 향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질서의 개입 절차가 SOLIS에 대한 비판을 결코 겨냥해서는 안 되듯이, 안보 기구는 질서에 반대하는 이들을 결코 겨냥해서는 안 된다. 이 한계가 질서의 보호가 질서를 굳어 버리게 하는 도구로 바뀌는 것을 막는다.

경찰국가 없는 내부 안전

SOLIS에서 내부의 안전은 무엇보다 감시와 위협이 아니라 그 원인을 없애는 데서 생겨난다. 누구도 궁핍이나 배제나 앞날의 막막함 때문에 범죄로 내몰리지 않는 곳에서는 순찰이 찾아 나서기 전에 범죄가 줄어든다. 그럼에도 보호해야 하는 곳에서는 가장 온건한 수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강제는 되도록 적게, 강제력은 오직 강제력에 대한 대답으로만 쓴다. 안보 병력은 공동체의 점령군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다. 그들은 개입하는 법만큼이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법을 훈련받고,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얼굴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 책 전체를 꿰뚫는 비대칭적 투명성이 적용된다. 완전한 투명함은 권력에, 모든 출동과 모든 지시와 모든 수단에 적용되고, 개인의 삶은 사생활의 보호 아래 놓인다. 그렇게 SOLIS는 감시의 방향을 뒤집는다. 기구를 숨기고 시민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고 기구를 들여다본다.

스스로 끝나는 예외

꼭대기 없는 질서도 위급함이 숙의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SOLIS는 예외를 미리, 누구나 아는 공개된 단계 모델로 정해 둔다. 평상시에는 보통의 규칙이 적용된다. 경계 강화 단계에서는 훈련과 비축물 보충과 핵심 시설의 보호 강화가 허용된다. 부분 동원 단계는 대피소를 열고, 예비 인

력을 부르며, 위험이 있는 곳에 힘을 모은다. 끝으로 전면 동원 단계는 대피, 수단의 재배치, 국경을 넘는 구호 통로의 개방을 허용한다. 각 단계에는 분명히 한정된 권한이 따르고, 공개적으로 발령되고 근거가 밝혀지며, 만료일이 있다. 의회의 새 의결이 없으면 저절로 끝난다.

예외를 비상 권한과 가르는 것은 해체의 의무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때 필요했던 것, 곧 권한과 데이터 수집과 배치와 비축물은 다시 거두어들인다. 일부 추첨으로 채운 기구가 모든 조치를 사후에 심사해 그것이 필요했고 비례에 맞았는지 따진다. 그래서 SOLIS는 몇 시간 안에 행동할 수 있으면서도 그 몇 시간이 몇 해로 바뀌지 않는다. 위급함은 필요한 것을 얻되,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는다.

공격 없는 대외 방위

무장한 힘은 역사에서 언제나 양날의 칼이었다. 보호를 주었고 파괴를 가져왔으며, 안정을 지켰고 두려움을 부추겼으며, 민족들을 지켰고 전쟁을 일으켰다. 고전적인 체계에서 군대는 흔히 국익, 힘의 과시, 자원 확보, 영향력 행사에 쓰이며, 그 결과 침략 전쟁과 군비 경쟁과 내부의 억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SOLIS에서는 밖을 향해 모든 것이 걸린 구분이 적용된다. 공격은 금지되고, 방위는 정당하다. SOLIS는 강제력으로 세워지지 않으며 누구도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관용의 이름으로 자신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의무도 없다. 정의로운 무언가를 이룬 사회는 스스로 침략자가 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교리는 오로지 방어적이다. 방위는 공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핵심 기반 시설과 데이터와 공급을 지키며, 생태계와 자원을 보전한다. 전력망에 대한 공격은 사이버 방위로 막아 내며, 그 과정에서 SOLIS 스스로는 확전하지 않는다. 체계는 층위로 조직되어 있다. 사이버와 정보 공간, 하늘과 우주, 땅과 바다, 그리고 민방위이며, 그 힘들이 조율되어 함께 움직인다. 이를 떠받치는 것은 모듈 단위로 훈련받고 평소에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예비 인력이다. 공격 임무도, 혼자서 전쟁을 수행하는 기계도, 생명에 관한 최종 결정이 인간의 손에 있지 않은 무기도 없다. 인공지능은 위협을 알아보고 분류할 수 있지만, 인간의 승인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군 지휘부는 언제나 민간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래서 SOLIS의 모든 권력이 그렇듯 고리의 감독과 법 아래 있다.

밖을 향해 SOLIS는 신중함의 균형을 찾는다. 공동의 조기 경보 체계, 군비 통제, 질서들 사이의 비상 대응 규약, 그리고 스스로를 묶는 사회가 홀로 서지 않도록 그 원칙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동맹이다. 방위 능력은 존재한다. 억지할 만큼 충분하되, 스스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묶여 있다. 그렇게 SOLIS는 방위를 공격과 힘의 과시라는 논리에서 풀어낸다. 군비 경쟁도, 침략 전쟁도, 자국민을 향한 투입도 없고, 인간과 지구의 보호가 있을 뿐이다.

지구 방위와 민방위

모든 위험이 제복을 입고 있지는 않다. 지진, 홍수, 전염병, 기술적 사고, 전력망을 위협하는 태양 폭풍, 충돌 궤도에 들어선 천체는 대부분의 적보다 사람들을 더 세게 때리며, 국경을 묻지 않

는다. 그래서 SOLIS는 보호 구조와 민간의 과제를 묶어 지구 방위를 이룬다. 별도의 부대인 재난 구조대는 기동성이 매우 높도록 훈련받으며,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기술적 사고와 우주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한다. 지진이 난 뒤에는 대피를 돕고, 비상 전력을 공급하며, 의료를 지킨다. 일찍 발견된 소행성은 막아 내고, 그동안 민방위는 대피를 준비한다.

민방위는 이 질서에서 위급할 때 견뎌야 하는 모든 것이 그렇듯 분산되어 지어져 있다. 흩어진 비축물, 대피소, 비상 에너지, 여러 겹으로 확보된 연결망, 그리고 후견받는 대신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위험이 인류 전체를 덮칠 때 지구 방위는 세계 질서를 다루는 장에서 이야기할 행성 방위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공동으로 떠받쳐지고, 그 자체로 다시 고리에 매여 있어, 종말로부터의 보호가 결코 한 세력의 부상을 위한 구실이 되지 않게 한다.

적극적인 일로서의 평화

그러나 가장 깊은 보호는 기구가 아니라 강제력을 부르는 이유가 없는 상태다. SOLIS에서 평화는 갈등과 갈등 사이의 휴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이다. 긴장을 일찍 누그러뜨리고, 불의가 폭력이 되기 전에 바로잡으며, 국경을 넘어 이해를 가꾸고, 위기가 닥쳐서야 시작하지 않는 외교를 펴는 일이다. 사회가 예방과 교육과 정의에 쏟는 것은 무기에 쏟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SOLIS가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은 더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생겨나는 불씨를 없애는 것이다. 이 질서에서 힘은 공격이 아니라 절제를 뜻한다.

장

05



경제와 자원

마라의 집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았다. 그것은 물과 빵과 출근길처럼 받침의 일부였다. 카누에는 가치 포인트가 들었다. 그의 기여 석 달 치였고, 그는 정말로 원하는 것을 위해 모으듯 그것을 위해 모았다. 사업체에서는 살림이 펼쳐져 있었다. 사업체가 납품받는 데 무엇이 필요했는지, 참여자들에게 무엇을 적립해 주었는지, 얼마가 적립금으로, 얼마가 지역 금고로 갔는지. 그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월말을 두려워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회 질서는 말로 밝히든 밝히지 않든 세 가지 경제적 물음에 답한다. 무엇이 누구의 것인가. 가치는 어떻게 생겨나며 누가 그것을 얻는가. 그리고 내일 무엇을 지을지는 누가 정하는가.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낸 질서들이 이 세 물음에서 무너졌다. SOLIS는 옛 처방 가운데 하나로 답하지 않는다. 시장을 없애지도 풀어 놓지도 않고 한계를 두는 질서로 답한다. 권리로서의 기본 공급,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수단으로 얻는 선택재, 그리고 여러 사람의 손에 남는 자본이다.

소유와 공유재

소유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에 속한다. 그것은 사회를 세우고 무너뜨렸으며, 발명을 낳고 전쟁에 불을 붙였고,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억압을 정당화했다. 자본주의는 흔히 소유를 자유 그 자체로 본다. 가진 사람이 힘과 안전과 만들어 갈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가 불평등을 키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보아 소유를 여러 차례 집단화했고, 흔히 관료적 경직, 의욕의 상실, 행정의 부패로 끝났다. SOLIS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꾸지 않는다. 두 원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피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개인의 재산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고, 생명의 자연적 토대는 공유재로 다뤄진다.

SOLIS에서 개인의 재산은 자기 결정의 일부이기에 보호받는다. 자기 집, 자기 옷, 자기 연장, 자기 계획을 위해 모은 것, 책, 기

념품,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모든 것은 개인의 것이다. 그는 그것을 소유하고, 꾸미고, 물려주고, 상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재산은 창의성과 정체성과 안전을 북돋운다. 예술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지니고, 가족은 자기들이 지은 집에 살며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지닌다. 당신은 생각으로, 예술로, 계획으로, 개인의 보물로 부유해도 된다. 다만 다른 이들에게서 숨 쉴 공기와 마실 물과 살아갈 땅을 빼앗아 부유해져서는 안 된다.

생명의 큰 토대, 곧 물과 흙과 공기와 에너지원과 원료는 사정이 다르다. 그것들은 누구의 사적 소유도 될 수 없다. 누구도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고, 그것들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며, 그것들을 남용하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생태계와 여러 세대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그래서 SOLIS에서는 사업체가 수원을 사들여 주민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이 살 집을 찾지 못하는데 투기를 위해 땅을 사들여 놀려 둘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 누구도 공기를 상품처럼 다룰 수 없다.

이 공유재는 공동으로 관리된다. 권력의 질서에 따라 각 층위의 의회와 관직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윤리 평의회의 심사를 받으며 관리한다. 그것은 국가 소유가 아니다. 이 질서는 사람들 위에 서는 국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용은 누구도 굶주리거나 착취당하지 않고 미래 세대도 접근을 유지하도록 정해진다. 어디서 물과 에너지와 땅이 얼마나 쓰이는지 보여 주는 열린 플랫폼이 이를 돕는다. 체계를 해치지 않고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정하는 채취 한도, 독점과 암시장의 형성에 대한 제재, 아껴 쓰는 이용을 북돋우는 프로그램도 이를 돕는다. 그렇게 SOLIS는 집단을 무너뜨리는 무제한의 사적 권력과 개인을 질식시키는 전면적 집단 통제 사이의 잘못된 선택을 풀어낸다. 자유가 창의성과 발명과 정체성을 북돋우는 곳에서는 자유를, 생존과 지속 가능성이 걸린 곳에서는 공동 관리를 둔다. 여기서 균형이 자라나

고, 여기서 신뢰가 자라난다. 개인은 자기 공간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생명의 토대가 자기 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으리라는 것을 안다.

기본 공급과 가치 포인트

돈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중심 도구였다. 돈은 교역을 가능하게 하고 위기를 일으켰으며, 발명에 불을 지피고 사회를 가난으로 몰아넣었고, 자유를 약속하고 의존을 만들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흔히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돈을 가진 사람은 영향력을 사고, 안전을 마련하고, 규칙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여러 차례 돈을 억누르거나 엄격히 통제했고, 그 결과 흔히 관료적 경직과 결핍과 암시장을 낳았다. SOLIS는 돈을 그저 새로운 교환 수단으로 바꾸지 않는다. 기본 공급과 선택재를 분명히 나누는 이중의 질서를 만든다.

◆ 기본 공급은 지불이 아니라 권리다

SOLIS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의 토대에 대한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주거, 에너지, 먹을거리, 건강, 교육, 기본적 이동이다. 이것들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것이다. 각 층위의 의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 곧 주택과 정수장과 학교와 병원과 교통을 계획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곧 이야기할 공동체 몫으로 운영된다. 누구도 기본 공급을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젊은 성인은 아무 대가 없이 기본 주택에 대한 권리를 얻고, 가족은 기본 식료품을 대가가 아닌 권리로 받는다. 기본 공급은 사치가 아니라 받침이다. 소박하고, 믿을

수 있으며, 모두에게 같다. 이로써 누구도 경력과 상관없이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바닥이 확보된다.

받침은 어디서나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어디서나 똑같지는 않다. 두 기본 주택은 결코 같지 않아서, 하나는 공원 옆에, 다른 하나는 길가에 있다. 기본 공급의 재화가 서로 다를 때는 연줄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다. 먼저 필요, 곧 가구의 크기와 직장과 학교와 돌봄 시설과의 거리, 다음으로 신청 순서, 그리고 여럿이 똑같은 자격을 가질 때는 추첨이다. 대기 기간은 공개된다. 대기가 길어지면 그것은 관직에게는 지으라는, 기본권 관찰 기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라는 과제가 된다. 받침 이상을, 곧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가치 포인트로 그것을 바꾼다. 거기서부터 선택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 선택재를 위한 가치 포인트

기본 공급을 넘어서는 모든 것, 곧 더 큰 집, 여행, 악기, 자기 계획을 위한 연장에는 가치 포인트를 쓴다. 가치 포인트는 사람에게 묶여 있고 이자가 없다. 그것은 오직 실제의 기여, 곧 노동과 돌봄과 양육과 발명과 자원봉사에서만 생겨나며, 시간과 자격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매겨진다. 쌓아 둘 수도 투기로 사고팔 수도 없으며, 그 상대적 가치는 사회적 쓸모와 지속 가능성과 희소성을 반영한다. 기술자는 에너지 설비에서 일한 대가로, 돌봄 노동자는 날마다 사람들을 보살핀 대가로, 예술가는 작품으로, 아버지는 아이들을 키우는 세월로 가치 포인트를 받는다. 결정적인 것은 이런 수단을 돈과 가르는 점이다. 그것은 스스로 불어나 권력으로 옮겨 가는 자본으로 바뀔 수 없다. 가치 포인트는 호수가 아니라 강이다.

◆ 중앙 계획 없이 가격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기에 시장을 밀어내는 모든 경제 질서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물음이 있으며, SOLIS는 그것을 피해 가지 않는다. 가격은 정보다. 시장에서 가격은 셀 수 없이 많은 분산된 결정에서 생겨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 준다. 시장을 없애는 질서는 이 신호 없이 사물의 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물음 앞에 서고, 역사는 어떤 중앙의 자리도 시장이 계산하는 것을 계산해 낼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SOLIS는 그런 전지를 내세우지 않는다. 시장을 중앙 계획으로 대신하지 않고, 시장에 한계를 둔다.

선택재의 상대적 포인트 가격은 위에서 정해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분산된 신호에서, 그것도 세 겹으로 생겨난다. 첫째 겹은 신호 그 자체다. 공급하는 쪽과 수요하는 쪽이 공급과 필요를 알리고, 상대 가격은 실제의 희소성과 실제의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순수한 계획이 잃어버리는 가격의 정보 기능이 살아남는다. 둘째 겹은 단단한 한계다. 모든 가격에는 생태적 비용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대륙을 건너는 비행은 기차 여행보다, 해로운 제품은 아껴 쓰는 대안보다 더 많은 포인트가 든다. 동시에 누구도 시장을 좁히거나 독점을 쌓을 수 없으며, 모든 제품은 성분과 에너지와 부담과 출처를 밝히는 열린 제품 정보지를 지닌다. 셋째 겹은 되먹임이다. 체계 전체가 투명하고 검증할 수 있다. 신호가 부당하거나 오래 갈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때는 데이터와 저울질을 잇는 교정 고리가 작동한다. 한쪽에는 희소성과 생태적 부담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다른 쪽에는 윤리 평의회의 심사가 있다. 이때 교정되는 것은 한계이지, 포고령으로 정하는 개별 가격이 아니다.

이 해법은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근사치이며, 스스로 그렇다고 밝힌다. 배분이 어느 정도 흐릿해지는 것을 감수한다. 그것이 두 막다른 길, 곧 불가능한 전지의 계획과 부당해지는 풀려난 시

장을 둘 다 피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가치 포인트의 생김새는 가격이 흐릿하게 남는 곳에서조차 그것이 축적과 권력의 지렛대가 될 수 없게 한다. 포인트는 쌓아 둘 수 없고, 투기할 수 없으며, 실제의 기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 권력이 되지 않는 저축

가치 포인트를 쌓아 둘 수 없다는 것은 대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과두 지배를 겨냥한 것이다. 남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옮겨 가는 축적과, 자기 계획을 위한 적당한 저축 사이에는 질서가 존중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치 포인트는 집, 여행, 작업장, 새 출발의 한 해 같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알맞은 기간 동안 쓸 수 있게 남는다. 그 한도와 소멸은 모은 것이 다른 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지렛대가 될 문턱을 넘어서야 비로소 작동한다. 삶의 끝에도 같은 문턱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남긴 가치 포인트는 그 문턱까지는 가족에게 가고, 그것을 넘는 부분은 공동체 몫으로 간다. 그렇게 이 수단은 개인에게서 계획할 능력을 빼앗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왕조가 생겨나지 않게 하면서 권력화를 막는다.

◆ 공동체 몫

돈 없는 질서는 학교와 병원과 정수장을 무엇으로 꾸려 가는가. 다른 모든 것을 나르는 바로 그 강으로 꾸려 간다. 가치 포인트가 적립될 때마다 그 일부가 각 층위의 공동체 금고로 넘어간다. 모든 기여에 대한 고정된 기본 몫과, 일정한 문턱 위에서 커지는 몫이다. 많이 받는 사람은 비율로 더 많이 낸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모든 소득이 공동체, 곧 그 기반 시설과 교육과 건강과 평화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공동체 몫으로 기본 공급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기초 연금이 채워지고, 기금이 쌓이고, 관직이 유지된다. 그것은 세금을 대신하며, 두 가지 점에서 세금과 다르다. 원천에서 생겨나므로 누구도 신고하거나 피해 가거나

거둬들일 필요가 없어 단순하다. 그리고 심사 기구가 각 몫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공개하므로 눈에 보인다. 기여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되는지 본다.

◆ 포인트는 어디서 오며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자기만의 가치 수단을 가진 모든 질서가 답해야 하는 물음이 남는다. 누가 포인트를 만들며, 그것이 얼마나 있을지는 누가 정하는가. SOLIS에서 개인 계좌에 대한 적립에는 두 가지 출처가 있다. 하나는 사업체가 자기 선택재로 벌어들인 것에서 지급하는 경우다. 그러면 포인트는 주인만 바뀌고 새로 생겨나는 것은 없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금고가 지급하는 경우다. 기본 공급 분야의 노동, 돌봄과 양육과 자원봉사, 추첨으로 뽑힌 이들의 복무, 기금의 사업에 대해서다. 오직 여기서만 새 포인트가 생겨나며, 그것도 등록된 기여에 대해서만 생겨날 뿐, 결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코 신용으로, 결코 이자와 함께 생겨나지 않는다. 포인트를 만드는 공동체 은행은 그 자체로 고리에 매여 있다. 일부는 추첨으로 채워지고, 구성원이 바뀌며, 심사 기구가 들여다본다. 어떤 기관도 스스로를 위해 포인트를 만들 수 없다.

유통되는 포인트의 양은 생산할 수 있는 선택재에 맞아야 한다. 너무 많으면 희소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가격이 한꺼번에 오른다. 너무 적으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도 재화가 쌓여 남는다. 둘 다 심사 기구가 꾸준히 공개하는 하나의 공개 수치, 곧 선택재의 일반 물가 수준에서 읽을 수 있다. 양은 모두 공개된 세 가지 조절 장치로 다스린다. 한 시간의 기여가 가져다주는 기본 가치, 공동체 몫의 크기, 그리고 그 위에서 포인트가 소멸하는 문턱이다. 이를 정하는 것은 현자 평의회의 조언과 윤리 평의회의 심사를 거친 나라의 의회이며, 의회는 누구도 하룻밤 새 가난해지지 않도록 이를 천천히, 정해진 폭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 문턱을 넘어 소멸하는 것과, 생태 가산금이 해로운 재화에 덧붙이는 것

은 누가 개입할 필요 없이 저절로 과열을 누그러뜨린다. 그러니 포인트의 양은 비밀스러운 학문이 아니다. 그 변화에 근거를 대야 하는 공개된 숫자다.

◆ 바깥과의 접점

SOLIS는 고립되어 살지 않으며, 그래서 기존 통화의 세계로 넘어가는 정해진 통로가 필요하다. 경계 거래소에서는 가치 포인트와 외국 통화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축적도 투기도 없다는 가치 포인트의 내적 성질이 밖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경계는 차익 거래를 위한 열린 문이 아니라 통제된 막이다. 개인의 환전은 제한된다. 여행이나 수입 같은 정당한 대외적 필요는 채워주지만, 포인트를 남의 재산으로 빨아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가치 포인트를 해외 자본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권력을 다시 들여올 대규모 유출은 눈에 보이고 상한이 정해져 있다. 반대 방향에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 다른 질서에서 옮겨 오는 사람은 자기 권리는 가져오지만 자기 권력은 가져오지 못한다. 외부 재산은 다른 누구에게나 그렇듯 같은 정도로만 가치 포인트로 바꿀 수 있고, 나머지는 원래 그대로, 곧 바깥에 남는다. 완충 기금은 환율을 안정된 폭 안에 유지해 외부 충격과 투기로부터 지키며, 생존이 걸린 공급망은 안에서 또는 여러 협력자를 통해 확보되어, 누구도 질서를 밖에서 굶길 수 없게 한다.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체는 이 규칙의 틀 안에서 경계 거래소에서 바꿀 수 있는 가치 포인트를 받는다. 경계의 의미는 바로 안의 질서가 외국 통화를 거치는 우회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데 있다. 막은 실제의 필요를 위한 가치는 통과시키고, 누군가 축적 금지 규칙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은 막는다.

◆ 투명성과 안전

모든 이체는 이윤이 아니라 안전한 처리와 투명성과 남용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 은행을 거친다. 데이터는 위조할 수 없는 기반 위에 놓인다. 계좌는 밖에서 보면 가명이며, 그것을 특정 개인과 잇는 일은 판사의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회가 보는 것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합산된 지표다. 큰 배분에는 두 사람 확인 원칙이 적용되고, 담합과 허위 실적의 패턴은 찾아내 공개되며, 남용을 드러낸 사람은 보호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 질서는 돈에 대한 의존을 풀어내면서 정해진 시장의 이점은 지킨다. 누구도 기본적 필요를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도 공기나 물이나 먹을거리를 독점할 수 없다. 어떤 발명도 더는 자본이 없어 실패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한 권리, 그리고 만들어 가기 위한 가치 포인트. 이 질서의 균형과 신뢰와 안정은 거기에 있다.

사업체, 자본, 혁신

◆ 자본 권력 없는 사업체

SOLIS에도 기업은 계속 존재한다. 기업은 역동성과 솜씨와 전문화를 이끄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것을 사업체라고 부른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꾸려 가기 때문이다. 사업체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사업체는 가치 포인트로 된 사업체 계좌를 두고, 그것을 통해 내준 선택재의 대가를 받고, 납품받는 데 필요한 것을 지출한다. 남은 것으로 구성원들의 기여에 보상한다. 그러고도 남는 것은 교체와 모험을 위한 적립금으로 두되, 그 필요에 맞춰 정

한 한도까지만 둘 수 있다. 그 한도마저 넘는 것은 구성원들과 공동체 몫으로 흘러간다. 그러니 사업체는 살림을 잘 꾸리고 자기 솜씨로 자랄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체를 사들이는 재산이 될 수도, 규칙을 쓰는 권력이 될 수도 없다. 필요하지만 적립금으로 채울 수 없는 투자는 기금에서 얻는다. 자본 시장은 없다.

사업체 안의 사람들은 상품이 아니라 참여자다. 그들은 지도부와 자기 일의 규칙을 함께 정하며, 지도부는 다른 모든 관직처럼 임기가 있는 자리다. 사업체의 성공은 끝에 남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안정성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생태적 수지와 책임으로도 똑같이 잰다. 공개되고 투명한 평가 체계가 이 차원들을 보이게 한다.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보상하고, 아껴 쓰는 재료를 쓰며, 지역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사업체는 비용만 줄이는 사업체보다 더 높이 평가받고, 기금에서 필요한 것을 더 쉽게 얻는다. 목표는 숫자를 옮기는 대신 진짜 가치를 만드는 경제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공급하는 공동체를 위해, 그것이 이용하는 자연을 위해, 그것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서다. 성장 그 자체를 극대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것들, 곧 건강과 교육과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과 정의가 자라게 하는 것이 문제다.

◆ 그물처럼 얽힌 자본 배분

여기에 어떤 경제 질서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권력의 물음이 숨어 있다. 가치 포인트는 순수한 순환이다. 흐르지만 쌓이지 않는다. 그로써 사적 초권력의 원천인 축적은 막혔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리를 옮겼다. 큰 사업은 큰 수단을 요구하며, 어떤 사업이 그것을 얻을지의 결정은 그 무엇보다 파장이 큰 경제적 결정이다. 그 결정은 이제 공동체 몫과 성공한 사업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채워지는 기금에 있다. 여기서 새로운 꼭대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자본의 배분은 한 손에 맡겨지지 않고 그물처럼 얽힌다.

지역 기금, 분야별 기금, 시민이 이끄는 기금 등 여러 기금이 나란히 있고, 저마다 권력의 질서에 따라 지어져 일부 추첨으로 채워지고, 구성원이 바뀌며, 책임을 진다. 결정적인 것은 길의 중복이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사람은 서로 독립된 여러 기금에 문을 두드릴 수 있어서, 하나의 거절은 결코 체계 전체의 거절이 아니다. 문 하나의 거절일 뿐이다. 수단의 고정된 몫은 지배적 합의에 도전하는 이단을 위해 남겨 둔다. 그렇게 미래를 짓는 힘은 흩어진 채로 남고, 왕좌가 되지 않는다.

◆ 자본의 장벽 없는 혁신

연구와 개발이 자본 때문에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기금은 기반 시설, 재료, 실험실 시간, 팀을 제공한다. 개인의 수고는 가치 포인트로 보상받고, 아이디어와 발명은 알맞은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며, 발명가는 인정과 함께 입증된 쓸모에서 나오는 가치 포인트 수익을 얻는다. 새로운 재활용 공법을 개발하는 과학자는 기금에서 자원을 얻고, 그의 팀은 지원을 받으며, 그 자신은 기여를 인정받는다. 그러면서도 발명은 모두의 접근을 막는 특허 뒤에 갇히지 않는다. 사업은 열린 단계 목표를 거치며, 거기서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끝난다. 실패하는 것은 늦고 비싸게가 아니라 일찍, 배울 것을 남기며 실패한다.

노동과 기여

오늘날 대부분의 체계에서 노동은 두려움과 단단히 묶여 있다. 충분히 벌지 못할까, 필요 없어질까, 뒤처질까, 병들고 지쳐서 쓸모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이다. 우리는 노동이 무엇보다 생존의

수단인 사회를 지었다. 그 결과는 좋아하지 않는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날마다의 고생 아래 숨이 막히는 창의성, 그리고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묻혀 버리는 발명이다. SOLIS는 노동을 다르게 이해한다. 생존의 강요가 아니라 창의성과 기여와 의미의 표현으로 본다.

SOLIS에서는 생명의 토대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누구도 살아남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도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사람들은 거기서 의미를 보고, 무언가 보태고 자신을 펼치고 싶어서, 그리고 받침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 기여에서 생겨나기에 참여한다. 젊은 어머니가 시간제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나누는 일이 기쁘기 때문이지, 그러지 않으면 보장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다. 나이 든 기술자가 에너지 설비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이지, 집세 걱정 때문이 아니다.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 사람도 기본 공급을 잃지 않는다. 기본 공급은 성과가 아니라 존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받침 위가 아니라 받침에서 산다. 그리고 기여를 보이게 만드는 공동체는 기여를 기대하기 위해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궁핍 없는 모든 질서가 답해야 할 물음이 남는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은 누가 하는가. 먼저 기계다. 반복 작업과 위험하고 힘들고 단조로운 일은 자동화되어, 사람들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 곧 창의성과 공감과 판단, 복잡한 문제 해결,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하는 곳에서는 가치 포인트가 말한다. 인력이 모자라는 곳, 밤 시간, 추위, 더러움이나 위험 속에서 하는 일은 시간당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다준다. 공동체의 필요가 기여를 매기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가난한 이들이 해야 하기에 가장 낮은 임금으로 처리되는 일이, SOLIS에서는 모두가 필요로 하기에 높이 보상받는다. 자동화가 사람을 쓸모없게 만들지 않도

록, 기금은 계속 교육과 재교육과 재능의 육성을 떠받치며, 혁신은 큰 사업체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 플라스틱 없는 포장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은 부유한 부모나 투자자에 기대지 않고도 혁신 센터를 쓸 수 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필요한 노동을 점점 더 많이 떠맡는 경제에서, 오래된 물음이 새로 떠오른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일하며, 성공한 삶은 무엇으로 재는가. SOLIS는 기여를 강제에서 떼어낸다. 자동화가 덜어 준 수고를 그것은 시간으로 돌려준다. 돌봄과 교육과 창작과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다. 그리고 성공의 잣대가 옮겨 간다. 성공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오래 남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노동의 존엄은 그 수익이 아니라 그 의미에 달려 있다.

분배의 정의

거의 모든 정치적 논쟁이 정의를 말하지만, 저마다 다른 것을 떠올린다. 어떤 이는 절대적 평등을, 어떤 이는 절대적 자유를, 또 어떤 이는 공정한 균형을 떠올린다. SOLIS에서 분배의 정의는 모두가 정확히 같은 것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세 가지를 뜻한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충분히 가진다는 것, 남의 희생으로 살지 않는 한 특별히 많이 보태는 사람은 더 누려도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를 갈라놓는 극단적 불평등이 아예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길은 이중의 통찰에서 나온다. 급진적 평등은 흔히 성과와 발명을 질식시킨다. 급진적 불평등은 사회를 중독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폭력을 키운다.

토대는 누구도 맨몸의 생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먹을거리, 깨끗한 물, 의료, 안전한 주거, 교육, 참여에 대한 접근은 시혜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이 든 사람은 허공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모든 자유의 조건이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조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토대 위에서 SOLIS는 사람들이 재능과 의욕과 능력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이 보태고, 책임을 떠맡고, 발명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은 더 누려도 된다. 더 큰 집, 더 먼 여행, 자기 계획을 위한 더 많은 수단, 더 많은 인정이다. 결정적인 것은 오직 이것이 착취에 기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언가를 만들었기에 넉넉할 수는 있어도, 남을 억누르거나 속였기에 넉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상받는 것은 의학적 발명을 한 과학자, 공정한 일자리와 오래 가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체,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예술가다.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가치를 만들지 않고 돈으로 돈을 버는 투기꾼, 자기 손해를 모두에게 떠넘기는 사업체, 오직 권력과 담장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엘리트다. SOLIS에서 이 구분은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가치 수단 자체에 짜여 들어가 있다. 이자도 투기도 없는 곳에서는 돈으로 돈을 만들 수 없다.

극단이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질서는 나중의 재분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균형 장치가 원천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몫은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비율로 더 많이 내게 한다. 축적의 문턱은 모은 것이 권력이 되는 것을 막는다. 상속 규칙은 불평등이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다. 거둬들인 수단은 불투명한 금고로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검증할 수 있게 교육과 건강과 발명과 공동체에 투자된다. 혁신 보너스는 오래 쓸모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에게 인정뿐 아니

라 그것을 실현할 수단도 준다. 그렇게 질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안전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동성을 잇는다. 번영을 악마처럼 몰아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번영을 책임과 잇고, 극심한 가난을 막자는 것이다. 극심한 가난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체계를 공정하다고 겪는 곳에서 신뢰가 생기며, 신뢰는 그것 없이는 경제와 정치와 공동체가 부서져 버리는 접착제다.

노후 보장

노년을 대하는 방식에서 사회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내버리는지가 드러난다. 많은 기존 체계에서 노후 보장은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다. 늙어서 충분히 갖지 못할까, 평생 일하고도 가난으로 끝날까, 공동체에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다. 고전적인 연금 체계는 인구 구조의 변화, 불안정한 재원,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업적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 SOLIS는 이와 달리 노년의 존엄을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한다. 누구도 정해진 존엄의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기여한 사람은 따라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더 받으며, 체계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한다.

이 보장은 세 기둥 위에 서 있다. 첫째는 기초 연금이다. 주거와 에너지와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는 다른 모든 삶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노년에도 유효하며,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 둘째는 적립 포인트다. 그것은 두 번째 돈이 아니라 삶의 업적의 기억이다. 노동과 돌봄과 양육과 자원봉사의 모든 해가 시간과 자격과 필요에 따라 적립 포인트로 기록

되고, 노년에는 그 합계로 젊은 세대의 공동체 몫이 떠받치는 가치 포인트의 정기 지급액이 정해진다. 셋째는 생산 기금이다. 사업체와 기반 시설과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널리 분산된 공동 기금이며, 그 수익은 이자가 아니라 그것들의 실제 이용에서 나와 가치 포인트로 노년층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장은 결코 하나의 원천에만 기대지 않기에, 한 원천이 약해져도 견딘다.

결정적인 것은 삶의 업적이 어떤 형태로든 인정된다는 점이다. 가족을 돌본 일과 아이를 기른 일은 이력의 공백이 아니라 값진 기여로 온전히 계산된다. 양육에 여러 해를 쏟은 어머니도 돈을 벌며 일한 사람과 똑같이 포인트를 쌓는다. 자격과 인력 부족을 반영하는 계수는 특히 필요한 일을 인정하고, 해마다의 상한은 자기 착취를 막는다. 지속 가능성 계수는 해당 연령층 전체를 놀라게 하는 대신 인구 구조의 흔들림을 부드럽게 고르며, 생산 기금은 널리 분산되고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도록 짜여 있다.

게다가 이 질서는 유연하고 인간적이다. 예컨대 예순두 살에서 일흔 살 사이로 은퇴 시점을 점진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고, 공정 계수와 함께 저마다의 길을 허용한다. 더 오래 기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점을 인정받고, 더 일찍 떠나야 하는 사람도 바닥없는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일할 능력이 줄어들 때는 가상의 적립이 보장해 주고, 유족은 기금 지분의 이전으로 보호받는다. 기존 체계에서 넘어오는 과정도 공정하게 짜여 있다. 이미 쌓은 연금 수급권은 적립 포인트로 환산되고, 두 체계가 나란히 돌아가는 긴 기간이 부드러운 전환을 보장하며, 나이 든 세대는 보장된 하한을 받는다. 그렇게 SOLIS는 노년에게서 두려움을 거둔다. 평생 일하고도 맞는 노년의 가난도,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불이익도,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붕괴도 없다.

순환 경제와 에너지

기존의 경제는 파괴적인 리듬을 따른다. 가져오고, 쓰고, 버린다. 원료를 캐내 제품으로 가공하고, 소비하고, 끝에는 쓰레기로 내다 버린다. 이 선형 체계는 메마른 흙과 더러워진 바다와 독성 매립지와 무너진 생태계를 남겼고, 기후의 변화를 앞당겼다. SOLIS는 이 논리와 결별한다. 그 경제가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규칙은 여기서 다룬다. 그 규칙이 섬기는 지구의 한계와 생명의 터전의 치유는 다음 장에서 펼친다.

순환 경제에서 자원은 소비되지 않는다. 그것은 순환한다. 제품은 오래 가고, 고칠 수 있고, 모듈로 되어 있으며, 다시 쓸 수 있고, 계획된 노후화는 금지된다. 기기에는 표준화된 모듈이 있어서, 배터리가 약해지면 기기 전체가 아니라 배터리만 바꾸며, 수명이 다하면 부품은 순환으로 돌아간다. 남은 재료는 다른 공정의 투입 재료가 되고, 사업체들은 한 곳의 찌꺼기가 다른 곳의 원료가 되도록 이어져 있다. 이 규칙들은 가격 옆에 있지 않고 가격 안에 있다. 생태적 비용이 모든 포인트 가격에 들어가고 모든 제품이 정보지를 지니기에, 아껴 쓰는 것이 해로운 것보다 싸며, 순환은 경제 활동의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구를 먹어 치우지 않는 원천에서 온다. 분산되고 회복력 있는 그 질서는 지구를 다루는 장에서 설명한다. 그렇게 SOLIS는 경제가 자연이 잃는 만큼 얻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생각과 결별한다.

세계적 경제 협력

우리는 경제로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지역도 더는 홀로 서 있지 않다. 원료와 재화와 데이터와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 흐르며, 그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저주가 더 크다. 이윤을 극대화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유무역, 착취와 환경 파괴에 기댄 공급망, 경제를 압박 수단으로 남용하는 지정학적 권력 게임이다. SOLIS도 경제를 세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약탈이 아니라, 가장 강한 이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협력의 그물로 생각한다.

교역 관계는 공정과 지속 가능성과 존중에 기댄다. 협정은 거인들 사이의 권력 게임이 아니라 분명한 윤리적 원칙 위의 합의다. 공정한 보상, 생태적 책임, 문화적 고유성의 존중, 그리고 단기적 전유 대신 장기적 동반 관계다. 그래서 부유한 지역의 사업체가 지역 공동체에 보상하지 않고 생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난한 지역에서 싼 원료를 그냥 빼 갈 수는 없다. 계약은 현지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양쪽이 어떻게 이득을 얻는지 밝혀야 한다. 약한 지역은 의존에 묶이지 않고 강해진다. 의존을 굳히는 원조 대신 기술과 지식의 이전, 현지의 회복력을 키우는 기반 시설에 대한 공정한 재원 조달, 현지의 목소리가 함께 결정하는 대등한 동반 관계가 들어선다. 그렇게 한 지역은 세계적 그물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영원한 빚더미에 빠뜨리는 굴레 같은 계약 없이 자기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키운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SOLIS는 구체적인 장치에 기댄다. 열린 교역 플랫폼은 계약과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을 드러낸다. 경제 문제를 다루는 윤리 평의회는 큰 사업과 협정

에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사한다. 모두가 자기 경제력에 따라 출연하는 공동 혁신 기금은 그 결과를 모두와 나눈다. 여러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가 그 위에 지배자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로 묶이는지는 세계 질서를 다루는 장에서 펼친다. 여기서는 원칙으로 충분하다. 협력이 경쟁보다 강하고, 규칙이 약한 이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며, 발명이 공동의 보물로 여겨지는, 그물로 이어진 세계 경제다. 세계는 옛 틀을 그대로 이어 가기에는 너무 촘촘히 얽혀 있고 너무 상처받기 쉽다.

장

06



지구, 생태, 재생

마라가 일하던 강은 그가 어렸을 때 기름 냄새가 났다. 그의 사업체는 스무 해에 걸쳐 굽이 하나하나 강을 옛 물길로 되돌려 놓았고, 첫 연어가 돌아왔을 때 도시는 잔치를 열었다. 강가의 모든 사업에는 강을 대신해, 그리고 백 년 뒤 그 강을 물려받을 이들을 대신해 말하는 대변인이 함께 앉았다. 그는 늘 동의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그가 옳았다.



책이 구상하는 모든 것, 곧 고리와 법과 경제와 교육은 어떤 다수도 의결할 수 없고 어떤 의회도 폐지할 수 없는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살아 있는 지구다. 파괴된 지구 위에서는 가장 좋은 질서가 무엇이냐는 물음 자체가 더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에 대한 책임은 다섯 가지 토대 가운데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넷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토대다. 이 장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한데 모은다.

행성적 한계

출발점은 정치보다 앞서는 통찰이다. 그것은 물리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한계가 있다. 과학은 그것을 행성적 한계라고 불렀다. 기후의 안정, 살아 있는 것들의 다양성, 물과 공기와 흙의 깨끗함이며, 이 한계를 넘으면 모든 생명을 떠받치는 체계가 뒤집힌다. 우리는 흙을 메마르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를 남획하고, 숲을 베어 내고, 내일이 없는 듯 온실가스를 대기로 퍼부었다. 종들이 지구 역사의 대멸종에 다가가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시간이 끝없이 있는 듯 행동한다. 그래서 SOLIS는 한계를 있는 그대로, 곧 모든 경제 활동과 모든 자유가 그 안에서 제자리를 얻는 벽으로 다룬다. 생태적 비용은 모든 가격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해로운 것이 아껴 쓰는 것보다 비싸다. 채취 한도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의회가 정하며 심사 기구가 감시한다. 한번 생존의 한계로 인정된 것은 어떤 경기 흐름도 다시 지울 수 없다.

보존을 넘어선 재생

이미 너무 많이 파괴된 곳에서는 보호만으로는 모자란다. 그래서 SOLIS는 보존을 넘어 복원에 힘을 싣는다. 덜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숲은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되돌린다. 흙은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일군다. 강은 덜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옛 물길과 그 생기로 되돌린다. 대기에서 탄소를 거두어 흙과 숲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은 이 치유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배출을 피하는 일 옆에 서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로써 성공의 잣대는 가장 작은 피해에서 가장 큰 회복으로 옮겨 간다. 지구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세대는 인류가 오랫동안 생명의 터전을 대해 온 방향을 뒤집는다.

닫힌 순환

자연은 쓰레기를 모른다. 한 생명이 내보내는 것은 다른 생명의 먹이다. SOLIS는 이 원리를 경제 활동의 기본 형태로 삼으며, 경제 질서는 그것이 가격과 제품의 규칙에 어떻게 짜여 들어가는지 보여 주었다. 채취에서 사용을 거쳐 쓰레기로 이어지는 직선 대신 닫힌 순환이 들어선다. 재료는 되도록 오래 쓰이고, 다시 쓰이고, 질 높게 재활용된다. 수리가 교체보다, 재사용이 소비보다 앞서며, 산업 전체가 한쪽의 찌꺼기가 다른 쪽의 원료가 되도록 이어져 있다. 다 쓴 기기의 껍데기는 태우지 않고 분해하고 씻어 새 제품으로 옮긴다. 이것은 재활용을 넘어선다. 처음부터 순환

을 향해 짜인 구상이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바꾼다. 버리는 대신 고치는 사람은 사물과 다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이 원은 그저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지 않는다. 재료를 흐름 속에 붙들어 두면서 동시에 지식과 번영을 위로 실어 나른다. 물질에서는 순환, 정신에서는 진보. 이것이 문명이 스스로를 먹어 치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나선이다.

생명의 터전의 권리

SOLIS는 배려의 원을 인간 너머로 넓힌다. 생태계, 강, 숲은 단지 재산이나 원료가 아니다. 그것들은 결정에서 무게를 지니는 고유한 비중을 가진다. 동물은 느끼는 존재이며, 질서는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그들을 한낱 재료로 만드는 사육은 이 질서에 자리가 없다. 영향이 큰 사업이 생명의 터전에 닿는 곳에서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를 후견인이 대변하듯, 지명된 대변인들이 의회와 윤리 평의회와 법정 앞에서 그 이해를 대변하며 생명의 터전에 목소리를 준다. 그리고 지구는 미래 세대의 것이기도 하므로, 모든 채취는 후손이 여전히 살 만한 지구를 만나야 한다는 단서 아래 놓인다. 그래서 윤리 평의회는 사업을 이 이중의 요구, 곧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에 대한 요구와 다가올 사람들에 대한 요구에 비추어 분명히 심사한다. 인간만을 뜻하는 윤리는 너무 작다.

농업과 먹을거리

인간이 먹는 것만큼 인간을 지구와 단단히 묶는 것은 없다. 그래서 SOLIS의 농업은 자연에 맞서지 않고 자연과 함께 일한다. 흙은 메마르게 하는 대신 돌려짓기와 부식토 쌓기와 혼농임업으로 일구고, 숲은 다양성이 남도록 가꾸며, 어족 자원은 오래도록 안정되게 남을 만큼만 쓴다. 고통을 낳고 땅을 삼키며 기후에 짐을 지우는 공장식 축산은 줄여 없앤다. 기르는 동물은 느끼는 존재에게 마땅한 방식으로 기른다. 먹을거리는 동시에 기본 공급의 일부다. 기본 식료품은 권리이며, 생태적 비용이 모든 가격에 들어 있기에 선택재에서도 지역의, 제철의, 아껴 쓰는 것이 비싼 사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 그렇게 먹는 일은 존중에서 시작한다. 자연과 동물과 자기 몸에 대한 존중이다.

에너지와 먼 미래

오래 가는 문명의 물질적 토대는 지구를 먹어 치우지 않는 에너지다. 그래서 SOLIS는 재생 가능하고, 분산되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체계 위에 선다. 해와 바람과 물과 지열이며, 이것들을 흔들림을 고르는 저장 장치와 지능형 전력망이 잇는다. 기금을 통해 SOLIS는 핵융합부터 오늘 아직 없는 저장 장치까지, 그 너머로 이끌 수 있는 것에 투자하되, 현재를 약속 위에 짓지는 않는다. 화석 에너지는 완전히 대체된다. 그리고 에너지는 다르게 만들어질 뿐 아니라 덜 쓰인다. 평생 가는 제품, 길이 짧은 도시, 아무것

도 낭비하지 않는 전력망은 어떤 설비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낀다.

공급이 분산되어 있는 데에는 생태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산된 공급은 중앙 집중식 공급이라면 쓰러졌을 고장을 받아 낸다. 한 부분이 멈추면 다른 부분들이 받치고, 어떤 단일 매듭도 사회의 공급을 손에 쥐지 않는다. 그렇게 생태적 필연은 이 책 전체의 논리와 만난다. 중심 자원에 대한 독점이 아니라, 흩어져 있기에 강한 그물이다. 이 토대, 곧 회복해 가는 지구와 그것을 먹어 치우지 않는 에너지 위에서야 비로소 이 책이 말하는 먼 미래가 가능해진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구"가 아니다. 지구는 우리 없이도 잘 지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한다.

장

07



교육과 지식

서른아홉에 마라는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흙을 모르고는 강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토양학이었다. 왜 서른아홉에 그러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강좌는 무료였고, 사업체는 그에게 시간을 내주었으며, 끝에 가서 그의 이력에는 점수가 아니라 그가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 적혔다. 같은 해 열여섯 살 딸 이다는 마침 모든 권위를 묻는 법을 배우는 반에 앉아 있었다. 자기가 사는 질서도. 이 책도.



떤 아이도 다시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 나는 배우면 안 돼.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멍청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달라. 이 세계에서 교육은 사치도, 장사도, 권력의 도구도 아니다. 그것은 물과 먹을거리와 안전처럼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이다. 이것이 이 장이 그리는 세계이며, 동시에 한 질서가 신민을 길러 내는지, 아니면 그 질서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내는지가 갈리는 자리다.

권리이자 토대인 교육

SOLIS에서 교육은 기본권이다. 이 원칙은 교육이 지식의 전달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는 통찰에서 나온다. 교육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고, 성찰하는 능력이며, 자신을 펼칠 가능성이고, 자기 결정과 참여와 존엄으로 가는 열쇠다. 교육 없이는 사람은 의존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남고, 가난은 대를 이어 되풀이되며, 불평등은 대물림된다. 교육을 지키는 사람은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권리를 지킨다. 교육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그 자유의 토대를 빼앗는다.

접근은 자유롭고 문턱이 없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학교에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서 시작되며, 졸업장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상담과 학습 자료를 얻는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그의 강점을 키우고 장벽을 메워 주

는 학습 체계를 얻는다. 나이 든 사람은 비용 없이 새로운 언어와 기술과 주제를 배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우지는 않기에 교육 체계는 유연하다. 서로 다른 배움의 길을 고려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장애를 결함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변이로 이해한다. 디지털 플랫폼, 공동의 배움터, 전문적 동반이 내용을 유연하게 다듬고 특별한 필요에 맞추도록 돕는다. 인위적인 장벽은 사라진다. 교육을 부유한 이들의 몫으로 남겨 두는 비용도, 기회를 출신과 연줄에 매어 두는 입학 장벽도, 소수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차별도 없다. 가난한 집안의 뛰어난 청소년은 대학에 가려고 빚을 질 필요가 없다. 쉰 살에 새 길을 찾으려는 노동자는 관료제에 가로막히지 않는다. 난민은 몇 년씩 기다리는 대신 곧바로 언어와 배움에 다가간다.

이를 떠받치는 것은 학교와 도서관과 학습 센터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공동으로 떠받치는 교육 기반 시설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동의 이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 공급에 속한다. 그 내용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윤리적으로 성찰되며, 다양하게 다듬어진다. 그로써 처음부터 이 장이 다시 돌아올 한계가 그어진다. 주입도, 선전도, "올바른" 의견의 강요도 없다.

평생 배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배움은 끝이 있는 인생의 한 시기처럼 짜여 있다. 먼저 학교, 그다음 직업 교육, 그 뒤로는 직업 생활이며, 그로써 사람은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빠르게 변하

는 세계에서 이런 생각은 치명적이다. 멈춤은 후퇴를 뜻하고, 어제의 지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SOLIS는 배움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본다. 사람이 쉼 없이 자신을 최적화해야 해서가 아니라, 배움이 사람다움의 일부, 곧 호기심과 성장과 연결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생 넓은 범위의 배움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다. 정규 기관뿐 아니라 비정규 형식과 스스로 이끄는 길에도 다가갈 수 있다. 마흔에 지속 가능한 건축을 더 배우려는 장인은 열린 강좌와 멘토를 찾는다.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를 최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프로그램을 얻는다. 드문 관심사를 지닌 청소년은 일찍부터 연구자들과 함께 일한다. 이때 배움은 낙인도 지위의 상징도 아니라 삶의 당연한 일부다. 늙어서도 배운다고 비웃음을 사는 사람은 없고, 배움이 비정규로 이루어진다고 배제되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의 세계가 배움을 벌주는 대신 북돋워야 한다. 오늘날 많은 일자리에서 재교육은 시간도 수단도 없는 개인의 짐이다. SOLIS에서 사업체는 지속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할 의무를 지고, 노동 시간은 배움의 시기가 들어설 자리가 있도록 짜이며, 새로운 역할과 길은 한 번의 졸업이 아니라 평생의 성장을 통해 생겨난다. 로봇 공학으로 옮겨 가고 싶은 경험 많은 돌봄 노동자는 그 길에서 제동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다. 배움의 시기는 보장되어 있다. 기본 공급이 임금 노동에 매여 있지 않기에, 누구도 교육 때문에 빚을 질 필요가 없다. 평생 한 사람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졸업장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담은 자라나는 이력이 들어선다. 사업과 경험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정식 시험이 똑같이 계산되며, 열일곱 살에 시험 하나를 망쳤다고 영원히 닫히는 문은 없다. 그렇게 어느 나이에나 호기심을 잃지 않고, 함께 더 현명하고 유연해지는 사회가 생겨난다.

지식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

정보의 시대에 지식은 권력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생존과 발명과 자유의 토대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체계에서 지식은 자유롭지 않다. 유료 장벽 뒤에 숨고, 특허에 얼어붙고, 데이터 독점에 쌓이고, 정부와 기업에 도구로 쓰인다. SOLIS는 지식을 공유재로 다룬다. 낭만에서가 아니라 필요에서다. 지식을 나누는 사회가 더 회복력 있고, 더 창의적이며, 더 공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OLIS는 과학적 발견, 기술 개발, 역사 자료, 문화 작품을 열어 주는 열린, 여러 언어로 된, 장벽 없는 지식 체계를 운영하며, 디지털 기반 시설이 없는 사람들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현지의 지식 센터로 이를 보완한다. 그렇게 한 마을 공동체가 연구 실험실과 같은 수준의 의학 지식에 다가갈 수 있고, 한 청소년이 가장 좋은 대학들의 교재에 다가갈 수 있다. 공동으로 떠받친 것은 공동체의 것이다. 공적 재원으로 지원된 연구의 논문과 데이터와 방법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발명의 힘을 몇 배로 키우고, 쓸데없는 중복을 피하며, 신뢰를 만든다.

개인의 발명은 보호받지만, 모두의 희생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 경제 질서가 정하듯, 발명한 사람은 인정과 함께 그 발명의 쓸모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고, 발명 자체는 알맞은 기간이 지나면 모두에게 열린다. 의학, 환경 기술, 기본 공급 같은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모두가 우선한다. 약효 성분을 개발한 사업체는 그 공을 인정받지만, 보건 위기에는 그 성분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열린다. 그렇게 지식은 상품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린 생명의 힘으로 남는다. SOLIS가 자기 제도에도 요구하는 투명성이 적용되는 한 사례다.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오늘날 많은 교육 체계에서 숨은 메시지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되풀이하라는 것이다. 보상받는 것은 이탈이 아니라 순응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회에는 새 길을 보고, 낡은 틀을 묻고, 익숙지 않은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SOLIS는 교육을 지식의 저장고가 아니라 생각하고 탐구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거기서는 '무엇'만이 아니라 '어떻게'와 '왜'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찍부터 사실만이 아니라 방법을 배운다. 상황을 분석하고, 패턴과 모순을 알아보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겉의 원인과 더 깊은 원인을 구분하는 법이다. 역사적 사건은 외워서 답하게 하지 않고 함께 풀어 본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관점들이 있었는지, 무엇이 달리 흘러갈 수 있었는지, 오늘과 어떤 닮은 점이 있는지. 이때 창의성은 장식이 아니라 핵심 역량으로 여겨진다. 예술과 과학에서도, 경제와 일상에서도 그렇다. 뜻밖의 것을 잇고, 불확실함을 견디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교육 체계는 그릇을 채우지 않고 불을 붙인다. 가르치는 이에게 도전하는 것을 허락하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값질 수 있게 하며, 지식을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해법을 찾는 것을 잰다.

◆ SOLIS까지 물을 수 있는 성숙함

여기에 이 책 전체에 결정적인 원칙이 있다. 기존 질서 앞에서 멈추는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그 반대다. 그래서 SOLIS의 교육은 모든 권위를 묻는 법을 분명히 가르친다. SOLIS

자신과 그 제도와 그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질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질서가 그 가치에 걸맞은지 알아볼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질서를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도구를 준다. 바로 여기에, 모든 질서가 교조로 굳어 버리는 일과 권력의 질서를 다루는 장에서 말한 공론장의 조작을 막는 가장 강한 보호가 있다. 출처를 확인하고, 관점을 비교하고, 권력에 물음을 던지도록 배운 사람들은 지배당하지 않는다. SOLIS는 시민들에게 추종이 아니라 판단력을 요구하며, 그로써 그 판단력에 비추어 평가받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의해 버려질 것도 감수한다.

윤리 교육

기술과 권력과 지식이 점점 더 큰 지렛대를 만드는 시대에, 윤리를 곁가지 과목으로 다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 한 사람이 체계를 마비시키고, 유전 암호를 바꾸고, 공급망과 데이터 흐름을 통해 수백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지렛대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쥐면, 그것은 불의와 파괴로 끝난다. 그래서 SOLIS는 윤리 교육을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꿰뚫는 토대로 삼는다.

윤리적 성찰은 모든 분과에 짜여 들어가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환경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경제에서는 공정과 지속 가능성이, 의학에서는 환자의 권리와 공정한 접근이, 기술에서는 남용의 물음이 다뤄진다. 모든 과목이 책임에 대한 성찰을 담고, 모든 사업이 그 쓸모만이 아니라 윤리적 결과까지 생각한다. 수업에서 앱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를 위험에 빠

뜨리며, 남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묻는다. 이 교육은 일찍 시작한다. 아이들은 함께 규칙을 만들고, 갈등을 풀고, 진짜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고, 남의 처지에 서 보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 교육은 윤리적 논쟁을 학교와 미디어와 이웃에서 일상으로 만든다. 건강한 사회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지, 자유의 한계는 어디인지 같은 물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길들이기가 아닌 교육

여기서 SOLIS가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반론이 하나 생긴다. 자기가 기대어 사는 가치를 향해 젊은이들을 빚는 사회는 언제나 교육을 길들이기로, 성숙을 향한 형성을 순종을 향한 조련으로 바꿀 위험 앞에 서 있다. SOLIS는 바로 이 걸음을 거부한다. 그것은 질서 전체가 맞서 싸우는 권위주의적 특징일 것이기 때문이다. 경계는 단 한 지점에 그어진다. 사회는 자기를 떠받치는 가치를 향해 다음 세대를 교육해도 되지만, 그 가치를 심사하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켜 주는 형태로만 그래야 한다. 그래서 SOLIS의 윤리 교육은 고정된 "올바른" 신념을 심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내리는 도덕적 판단, 곧 SOLIS조차 그 자신의 잣대로 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사람을 자유롭게 두는 형성은 교육이다. 사람을 묶는 형성은 주입이다. 이 질서의 토대와 양립하는 것은 앞의 것뿐이다.

세계적 지식 네트워크

이번 세기의 큰 물음들, 곧 기후, 에너지, 건강, 평화, 기술은 국경을 모르고 세계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그런 대답은 지식이 나라와 문화와 분과를 넘어 자유롭게 이어질 때에만 생겨난다. 그래서 SOLIS에서 학교와 대학과 연구소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데이터와 방법을 나누고, 공동의 사업을 떠받치며, 국경을 넘어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계적 그물의 일부다. 한 대륙의 학교가 다른 대륙의 학교와 함께 숲을 되살리는 사업을 하며, 현지의 식물 지식과 기후 데이터와 기술을 두 지역 모두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모델로 엮는다.

이때 SOLIS에서 "세계적"이라는 말은 "서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하고 서로를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다. 중요한 지식은 큰 대학들의 지식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지식, 오래 가는 물건에 대한 수공예 문화의 지식, 표현과 변화에 대한 예술 운동의 지식이기도 하다. 깨끗한 식수를 위한 사업은 그렇게 첨단 기술과 전해 내려온 방법과 지혜로운 설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엮을 수 있다. 현지에 맞으면서도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문화를 존중하는 해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서 배우며, 남들이 벽을 쌓는 곳에서 신뢰를 만드는 문화 간 판단력이 생겨난다. 그로써 지식은 서로를 밝혀 주는 빛점들의 세계적 그물이 된다.

장

08



건강과 안녕

마라의 아버지가 진단을 받았을 때, 청구서도, 대기 명단도, 아직 그럴 가치가 있느냐는 물음도 없었다. 기계의 제안을 읽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반대한 의사가 있었다. 요나스가 돌봄 팀과 함께 꾸민 집 안의 방이 있었고, 가족이 침대 곁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집에서, 고통 없는 작별이 있었다.



무도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 그는 안다. 나는 보살핌을 받을 것이고, 진지하게 대우받을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체계에서 건강은 위험이자 비용 항목이며, 보험사와 산업과 정치가 겨루는 경기장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 돈이 적은 사람은 배급과 대기 명단을 받는다. 운이 나쁜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SOLIS는 이 논리와 결별한다. 건강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권리, 곧 협상할 수 없고 상업적이지 않은 인권이며, 경제 질서가 정하듯 모두가 아무 대가 없이 누리는 권리에 속한다.



모두를 위한 보건 의료

접근은 모두에게 똑같고 질이 높으며, 인간적이고 전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인적 의료는 증상만 치료하지 않고 그 원인을 이해한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환경도 본다. 그래서 만성 허리 통증을 앓는 노동자는 진통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리 치료와 일터의 예방 조치와 심리적 동반에 다가간다. 건강은 그저 기능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의료에는 처음부터 예방과 마음의 건강과 사회적 지원이 포함된다. 건강은 유전자와 생활 방식만이 아니라 안전과 공동체와 의미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 의료는 사회복지와 교육과 이웃의 그물과 함께 일한다. 출산 뒤 우울증을 겪는 젊은 어머니는 의료적 도움과 함께 부모들과 상담과 동반으로 이루어진 그물을 얻으며,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이를 떠받치는 것은 정의와 안정을 지키는 공동체 몫이다. 기본 의료는 연대로 떠받쳐지고, 투명하게 관리되며, 두 계급의 의료도, 청구서 때문에 생계를 걱정하는 일도 없다. 의사와 간호사와 치료사는 팀으로 일한다. 의료는 현지 센터와 이동 진료소와 원격 진료를 통해 도시와 시골에 똑같이 닿으며, 사람들은 수단과 우선순위와 새로운 치료법을 결정할 때 함께 말한다. 선택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있어도 되지만, 결코 기본 체계를 허물거나 특권층의 평행 세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건강은 공동의 재화가 되고, 한 사회가 어떤 윤리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표현이 된다.

수리 대신 예방

오늘날 대부분의 보건 체계에서는 같은 틀이 되풀이된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다가 병들고, 그제야 체계가 늦게, 비싸게, 뒤늦게 반응한다. 집을 안전하게 짓도록 돌보는 대신 집이 이미 불탈 때에야 출동하는 소방대와 같다. SOLIS는 건강을 수리 공장이 아니라 병이 생겨나는 곳에서 시작하는 능동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때 예방은 더 건강하게 살라는 호소 이상의 것이다. 건강이 평범한 상태가 되도록 환경 전체를 짜고, 작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다. 고립되기 시작한 청소년은 우울의 틀이 굳기 전에 일찍 연결을 찾는다. 큰 부담을 진 노동자는 지쳐 쓰러지기 전에 제때 다른 근무 방식을 얻는다.

그래서 건강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떠맡는,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과제다. 도시 계획은 녹지와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길을 만든다. 일의 세계는 건강한 노동 시간과 공동 결정을 챙긴다. 먹을거리 체계는 건강한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값으로 만들고, 교육은 어려서부터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며, 여가는 문턱이 낮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렇게 예방은 일상의 당연한 일부가 된다. 간편한 검진에서 문턱 낮은 상담을 거쳐,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사람에게 맞는 운동과 식생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다. 이런 도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으로서의 운동, 학교와 사업체의 건강한 음식, 쉼을 위한 시간을 내놓고, 사업체는 지쳐 버린 노동력 대신 건강하고 의욕 있는 사람들을 얻는다. 예방은 수단만이 아니라 고통을 아끼며, 재난을 뒤쫓는 대신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기에 체계를 더 유연하고 오래 가게 만든다.

마음의 건강

많은 사회에서 마음의 건강은 사적인 문제,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나은 흠으로 여겨지고, 그 결과는 낙인과 수치와 고립과 넘쳐나는 대기 명단이다. SOLIS는 이 그림을 뒤집는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 중심적이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누군가 무너질 때에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생각하고 가꾸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관료적 장벽 없이, 감당 못 할 비용 없이, 몇 달씩 기다리지 않고,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상담과 치료, 언제

든 닿을 수 있는 위기 지원, 그리고 예방 상담에서 집중 치료까지 이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가 포함된다. 불안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젊은 여성은 몇 달 뒤가 아니라 곧바로 도움에 다가간다. 게다가 마음의 건강은 병원만의 주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함께 생각하는 가로지르는 주제다. 학교에서는 회복력과 마음 챙김과 열린 대화 분위기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믿고 기댈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한다. 일의 세계에서는 과로를 막는 의무적 예방, 유연한 시간, 자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책임을 훈련받은 관리자를 통해 그렇게 한다. 공동체에서는 이웃의 센터와 문턱 낮은 상담 창구를 통해 그렇게 한다.

이것은 사회적 개방의 분위기를 전제로 한다.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되고, 정신 차리라는 요구로 되돌려 보내지는 대신 귀 기울여 주는 분위기다. 오늘날의 많은 부담, 곧 탈진과 우울과 외로움과 불안은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체계의 결과, 곧 과부하와 고립과 의미 상실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고 예방과 치유의 구조를 함께 만드는 질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며, 동시에 억눌린 고통이 낳는 큰 비용을 스스로 아낀다.

사회적 건강과 공동체

건강을 말할 때 사람들은 몸을, 어쩌면 마음을 떠올린다. 그러나 세 번째의, 흔히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 사회적 건강, 곧 한 사람이 다른 이들과 얼마나 이어져 있느냐는 물음이다. 연구는 여기서 분명하다. 외로움은 흡연에 견줄 만큼 건강을 해치며, 사회적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공동체

는 즐거운 덤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기본 욕구이며, SOLIS는 이것을 체계의 과제로 삼는다.

SOLIS에서 공동체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고 의식적으로 가꾸어지고 지켜진다. 건축과 도시 계획과 공공 공간은 만남과 서로 돕는 일이 쉽게 일어나도록 꾸며진다. 모임과 그물과 문턱 낮은 교류의 기회는 자리와 지원을 얻고, 공원과 도서관과 공동체 센터 같은 곳은 상업에 잠식되지 않은 채 열려 있다. 이때 외로움은 사적인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의도적으로 대응한다. 고립이 어디서 생기는지, 예컨대 노인이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나 새로 이사 온 이들에게서 생기는지에 눈길을 두고, 연결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편다. 자녀가 멀리 사는 나이 든 여성은 그렇게 세대를 잇는 그물의 일부로 남아, 자기 경험을 보태면서 동시에 지원을 얻는다.

여기에는 힘에 대한 다른 이해가 이어져 있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저마다 자기만 챙기고 약함을 보이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에서, SOLIS는 진정한 힘이 연결과 연민과 협력에서 자라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전문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 팀으로 일하는 법,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다. 돌봄은 낮은 일로 깎아내려지지 않고 높이 존중받으며 기여로 보상받는다. 공동체를 북돋우는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를 받쳐 주기에 더 안정되고, 더 평화롭고, 더 창의적이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모든 좋은 질서가 그렇듯, 가장 강한 이들이 얼마나 빛나는지가 아니라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자신을 잰다.

디지털 보건 체계

의학의 디지털화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따른다. 더 나은 진단과 더 쉬운 접근에 대한 희망, 데이터 남용과 차가운 자동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SOLIS는 여기서 질서 전체의 원칙을 따르는 분명한 길을 간다. 기술은 인간을 섬기는 도구이지 인간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다. 기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넓혀 주지만,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곧 연민과 곁에 있음과 관계를 결코 대신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모든 핵심 정보를 모아 둔 디지털 건강 기록을 가진다. 이 기록은 안전하게 암호화되고, 분산되어 저장되며,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열린다. 응급 상황에서 구조대는 프로필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은, 질서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듯, 사적인 데이터 이용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 인공지능은 검사 결과의 판독, 희귀병의 조기 발견, 개인별 권고 등 여러 층위에서 체계를 돕지만, 결코 결정하는 심급이 아니다. 기술을 다루는 장이 모든 인공지능에 정하는 규칙이 적용된다. 인간의 감독은 의무이고, 결정은 맹목적으로 자동화되지 않으며, 환자는 권고를 이해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의사는 제안을 따르는 대신 그것을 검토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선택지를 설명한다. 원격 진료와 이동 서비스와 몸에 지니는 기기는 거리를 넘어서, 외딴 지역의 사람들도 현대적 의료에 다가가고, 만성 질환자는 연결된 기기를 통해 제때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은 설명하고, 지켜보고, 개선할 수 있지만, 손을 잡아 줄 수도, 위로할 수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다. 디지털 체계는 시간과 닿는

범위와 정확성을 만들어 주지만, 치유와 돌봄의 심장은 사람 사이의 관계로 남는다.

세계적 보건 네트워크

오늘의 세계에는 모순이 있다. 병은 국경을 모르지만, 보건 체계는 국경을 아주 잘 안다.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환경 독소가 풀려나거나, 생명공학의 위험이 닥치면, 나라들은 흔히 담을 쌓고, 탓을 돌리고, 자국의 이익을 따지며, 그것은 시간과 생명과 신뢰를 앗아 간다. SOLIS는 건강이 언제나 세계적이라고 말한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두에게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와 이윤 동기를 넘어 작동하는 구조를 짓는다.

여기에는 의학적, 생태적, 기술적 신호를 일찍 잡아내고 열어 나누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조기 경보 체계가 포함된다. 이 체계는 현지의 실험실과 센서, 언제나 사람의 검토가 함께하는 분석, 빠르게 조율해 움직이는 위기 대응 팀에 기댄다. 외딴 지역에서 새로운 열병이 나타나면, 그것은 덮어지지도 방치되지도 않는다. 분석과 지원과 조치로 이루어진 조율된 대응이 작동한다. 이때 의학의 돌파구는 지정학의 장난감이 아니다. 연구 결과는 숨기지 않고 나누며, 약과 백신은 시장의 힘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고, 발명가에 대한 인정은 결코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한 바이러스에 맞서는 백신은 그것이 가장 절실한 곳에도 의도적으로 공급된다.

부유한 지역이 가난한 지역의 튼튼한 보건 체계 구축을 돕는 것은 이 질서에서 자선이 아니라 합리적인 필연이다. 어디선가 통제 없이 날뛰는 바이러스는 어디로든 퍼지며, 약한 체계는 현

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래서 기반 시설과 교육과 분산 생산에 대한 투자는 모두의 공급 안전에 이바지한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든 건강하게 남을 더 나은 기회를 얻고, 국가들의 경쟁은 공동의 사업, 곧 그것이 당연하기에 지식과 수단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

노년과 작별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는 질서는 사람을 그 삶의 온 궤적을 따라, 그 끝까지 동반한다. SOLIS에서 노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시기가 아니라 온전한 삶의 한 시기다. 나이 든 이들은 공동체의 일부로 남고, 그들의 경험은 의회에서, 학교에서, 젊은이의 멘토로서 필요하며, 그들에 대한 돌봄은 숨겨야 할 짐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떠맡는 존중받는 과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존엄을 잃지 않고 그것을 받고, 돌봄을 베푸는 사람은 그에 대한 인정과 기여를 얻는다. 그리고 삶에는 그 끝도 속하기에, SOLIS는 죽음에 인간다운 틀을 준다. 누구도 홀로, 피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모욕당한 채 죽어서는 안 된다. 삶의 끝에서의 동반, 고통의 완화, 죽어 가는 이의 뜻에 대한 존중은 사람을 그저 살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떠나게 하는 보건 질서에 속한다.

장

09



문화와 의미

빛의 축제 저녁, 도시는 거리의 불빛을 낮추었고, 마라는 아들 레비와 함께 다리 위에 서서 별을 셌다. 오후에는 한 극단이 장터에서 지역 의회를 연기했다. 모든 것을 묻는 요리사와 너무 오래 말하는 수리 기술자가 나왔다. 마라는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다. 나중에 그는 아버지의 기일마다 그랬듯 고요의 집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었다.

점 더 빨라지고 기술적이 되어 가는 세계에서, 사람을 깊이 사람이게 하는 무언가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문화다. 문화는 그저 오락이나 장식이 아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기억이자 내면의 나침반이며, 사람들을 떠받치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말해 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는 어떤 경제도 어떤 기술도 답할 수 없는 물음, 곧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물음을 사회가 던지는 자리다. 그래서 SOLIS는 문화와 의미를 곁가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으로 인정한다.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의 문화

모든 문화유산은 크든 작든, 세계적이든 지역적이든 소중하게 여겨진다. 중요한 문화와 중요하지 않은 문화도,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도 없다. 원주민의 이야기는 고전 작품만큼, 지역의 사투리는 세계어만큼 무게를 지닌다. 문화는 변하고, 자라고, 섞일 수 있으며, 동시에 자기에게 신성한 것을 지킬 수 있다. 공동체는 자기 전승 가운데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지킬지 바깥의 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문화가 시장이나 우연에 내맡겨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가꾸는 프로그램이 있다. 언어와 이야기와 작품을 지키는 기록 보관소, 문화를 만들고 전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문화적 지식이 살아 있는 공간이다. 젊은이와 노인을 이어 노인들이 자기 이야기와 노래와 조리법을 나누게 하는 프로그램은 문화

를 향수가 아니라 살아 있는 어울림으로 지킨다. 사람에게는 방향을 잡기 위한 뿌리가 필요하고, 사회에는 결속을 만들고 뿌리뽑힘에 맞서기 위한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 풍요다.

예술, 음악, 문학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예술은 사치품이나 시장의 대상이나 과시용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예술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영혼의 언어이고, 사회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도구이며,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실험실이다. 예술은 개인과 공동체, 현실과 비전을 잇는 고리다. 그래서 SOLIS는 예술과 음악과 문학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삼는다.

예술 창작은 그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다. 기금은 시장 가치나 대중의 취향과 상관없이 모든 분야의 예술가를 떠받치며, 실험적이고 비판적인 것이야말로 자리를 얻는다.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작품을 만드는 극단은 그것이 팔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다. 이때 예술은 구경꾼의 스포츠가 아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성과의 압박이나 엘리트적 장벽 없이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연주하고, 쓰고, 연기하도록 격려받으며, 나이 든 이들은 젊은이들이 배울 자기 이야기를 보탠다.

예술은 시장 가치가 아니라 표현의 힘과 진정성과 사회적 자극으로 평가받는다. 거리 예술, 디지털 예술, 전통 형식은 똑같이 진지하게 다뤄지고, 사회적이거나 생태적인 물음을 다루는 이는 특별한 지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라피티에서 자기 표현을 찾는

젊은이는 고발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벽과 작업장과 동반을 얻는다. 예술은 개인에게 목소리를 주고, 사회에는 면역 체계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어디가 병들었는지 감지하고, 표면 아래 놓인 것을 드러내며, 말이 모자라는 곳에 다리를 놓는다.

영성과 철학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의미를 찾는 일은 사적인 일로, 종교는 공적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철학은 소수 전문가의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먹을거리와 집과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의미와 깊이와 전체에 대한 관계가 필요하고, 큰 물음을 던질 공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SOLIS는 이 차원을 근본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사회 질서의 일부로 삼는다. 모든 형태의 영성은 남을 해치지 않는 한 존중받는다. 종교와 무신앙과 모든 형태의 의미 찾기가 동등하게 나란히 선다. 누구도 무언가를 믿도록 강요받지 않고, 누구도 남에게 자기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가진 여성은 수도자가 명상하거나 사상가가 철학적 대화에서 논증하는 것과 똑같이 자유롭게 자기 의례를 행할 수 있으며, 이 자유의 보호는 차별이나 강제가 시작되는 곳에서만 끝난다. 이를 위해 모두에게 열린 고요와 성찰의 공적 공간이 있다. 어떤 전통을 따르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생각에 잠기고, 홀로 있으러 가는 고요의 집이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도 묶이지 않고 인간다움을 기리는 공동의 축제와 기념일이 있다.

끝으로 철학은 엘리트의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구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좋은 삶과 정의와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어른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생각 그 자체가 중요한, 함께 묻는 공간을 찾는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사랑과 죽음과 책임과 용기와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녁들이다. 이런 물음을 허락하는 사회는 존재의 불확실함에 오락이 아니라 깊이로 맞서기에, 더 회복력 있고 더 연민이 깊다. 이것은 교육을 다루는 장이 뒷받침하는 성숙함과 곧바로 이어진다. 의미는 명령할 수 없고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질서는 생각을 이끌려 들지 않고 생각하도록 초대한다.

의례와 공동체의 경험

현대 세계에서는 노동과 소비, 심지어 여가까지 많은 것이 기능적인 것이 되었고, 함께 겪는 일, 곧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위한 자리가 흔히 모자란다. SOLIS는 여기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본다. 의례는 그저 민속이나 종교 전통이 아니다. 그것은 다리다. 사람과 세대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다리다.

SOLIS에서 의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 의례는 사람들의 필요와 경험에서 생겨나며, 바뀌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전통적인 형식과 함께 생태적이거나 예술적인 새로운 형식에도 자리가 있다. 한 도시가 시민들과 함께 예술과 음악과 자연과 공동체가 만나는 축제를 만든다. 바깥 사람을 끌어들이는 볼거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정체성의 표현으로서다. 빛의 축제에는 도시 전체가 불빛을 낮추고, 사람들은 함께 별 아래 선

다. 이런 의례는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일 수 있고, 사회적이거나 생태적일 수 있으며, 멈춤과 연결과 의미의 순간을 만든다.

흔히 쉼 없고 조각난 세계에서,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더 큰 무언가를 나누고 있음을 일깨우는 순간이다. 그것은 그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아 낸 의미이며, 공동체가 그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공동체를 튼튼하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체는 자기 의례를 가꾸고 키울 수단을 얻고, 참여는 출신과 신앙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의미 찾기와 개인의 충만

많은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공은 경력과 재산으로, 관계는 사적인 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물음 하나가 대답 없이 남는다. 우리는 왜 지금 하는 일을 하며,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충만하게 하는가. SOLIS는 이 물음을 중심에 둔다. 좋은 사회는 효율적이고 부유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사회는 사람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정해져 있지도 획일적이지도 않고, 개인적이고 살아 있는 의미다. SOLIS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이 자기에게 중요한지,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 자신을 잃지 않고 어떻게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해 보도록 격려받는다. 청소년은 수익만이 아니라 열정과 기여에 따라 자기 소명을 찾도록 동반받는다. 어른은 자기 길이 더는 맞지 않을 때 방향을 바꿀 권리가 있어서, 사회복지를 그리워하는 기술자는 지위를 잃을 두려움 없이 다시 배울 수 있다. 이때 삶은 쓸모 있는 영역과 쓸모없는 영역으로 쪼개지지 않는

다. 노동은 그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녀야 하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같은 기여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더라도 소중히 여겨지고 기여로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자기만의 의미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들이 있다. 상담, 멘토링, 성찰의 공간, 전환기에 기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전문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의 성장까지 아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부드러운 바람 이상의 것이다. 의미 없는 사람은 속이 비고 소외되며, 소외된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는 그 겉모습이 아무리 빛나도 병든 사회다.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삶의 기쁨과 유머

사람다움을 진지하게 대하는 질서는 웃음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웃음은 치유한다. 굳은 틀을 깨고,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스스로를 웃을 수 있는 사회는 모든 큰 이념을 위협하는 광신에 대한 면역을 지닌다. 그래서 SOLIS는 유머와 삶의 기쁨을 오락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정한다. 축제, 놀이, 음악, 운동, 쉼은 진짜 삶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쉼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의 토대다. 이 질서의 의례는 아이러니와 자기비판을 허락하고, 그 예술은 비웃을 수 있으며, 그 공직자는 풍자화에 그려지는 것을 견뎌야 한다. 더는 웃음거리가 될 수 없는 구상은 구상이기를 그치고 교조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SOLIS가 결코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세계적 문화 교류

오늘날에는 두 가지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있다. 한편으로 문화적 연결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 흡수와 정체성의 상실과 이질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거기서 불안과 불신이 생겨나고, 살아 있는 교류의 자리에 흔히 움츠림과 비난이 들어선다. SOLIS는 다른 길을 간다. 세계적 문화 교류를 겉치레 장식이 아니라 촘촘히 얽힌 세계에서의 필연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교류를 의도적으로 북돋운다. 학교와 문화 기관의 협력, 국경을 넘는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 그리고 엘리트만이 아니라 지역의 활동들도 잇는 축제와 플랫폼을 통해서다. 한 음악 축제는 여러 대륙의 사람들을 차례로 무대에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도 혼자서는 지어낼 수 없었을 무언가를 함께 만들게 한다. 이때 문화적 전유의 물음은 통째로 단죄하지도 무심하게 지나치지도 않고, 의식과 대화로 다룬다. 한 형식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뜻하며, 누가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가. 주변부의 집단은 자기 표현 형식을 지킬 수 있고, 문화는 나누고 싶은 것을 나누고 원하는 곳에 경계를 그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무늬로 작업하려는 사람은 그저 베끼는 대신 그 공동체와 교류에 들어선다.

그렇게 다양성은 위협이 아니라 보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과 표현 형식을 발견하고, 그것이 시야를 넓히고 연민을 키운다. 교류하며 사는 사회는 더 회복력 있고 더 창의적이며, 연결된 세계에서 큰 도전은 함께해야만 이겨 낼 수 있다. 사람들은 벽 뒤에 숨는 대신 열린 광장에 모여, 인류의 공동 보물 창고로서 예술과 음악과 생각이 흐르게 한다.

문화의 자유와 움직이는 정체성

문화는 의미를 주고, 정체성을 만들고, 세대를 잇는다. 그러나 문화는 누군가에게 전유될 때 사람들을 가를 수도 있고, 권력이나 시장에 굴복할 때 선전에 봉사할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체계에서 문화는 상품이나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되어, 자유롭고 사람을 잇는 성격을 잃는다. SOLIS는 문화를 자유롭고 다양하면서도 공동으로 떠받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술과 언어와 종교와 전통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누구도 자기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문화는 교육의 장이 말하는 성숙함에 따라 비판적일 수 있고, 질서 자체를 포함한 권위를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술가는 검열이나 상업적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 예술을 만들 수 있으며, 공동체는 기본권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문턱을 존중하는 한 자기 전통을 가꿀 수 있다. 문화가 소수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도록 공유재로 남는다. 박물관과 도서관과 극장과 디지털 기록관은 열려 있고, 교육은 다양성을 이어 가며, 문화 창작은 시장의 압박이 아니라 기금이 떠받친다. 그래서 젊은 음악가는 상업적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원을 얻는다.

끝으로 SOLIS에서 정체성은 일차원적이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움직인다. 한 사람은 자기 지역의, 자기 직업의, 그리고 세계의 일부로 동시에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층위들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정체성은 위에서 정해지는 대신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문화는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만드는 다리가 되고, 세대와 집단 사이의 대화를 열며, 변화의 시기에 방향을 준다. 이때 다양성은 인위적으로 분열에 악용되지 않는 한 힘이다. 문화는 자유롭고 팔려 가지 않으며, 정체성은 자라고 강요되지 않는다.

장

10



기술, 인공지능, 미래

의회에서 시스템은 지역이 다음 태양 폭풍에 맞서 전력망을 어떻게 단단히 할 수 있을지 세 갈래의 길을 내놓았다. 비용과 위험, 그리고 각 길이 땅을 얼마나 먹어 들어갈지도 함께였다. 두 번째 시스템은 가장 그럴듯한 길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임무를 맡았고, 그 일을 잘 해냈다. 요리사는 물음이 제대로 던져졌는지 물었다. 문제가 전력망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 앉아 있을 사람들인지. 기계들은 그 물음에 말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의회가 일하기 시작했다.



람은 예로부터 자기를 돕는 도구를 만들어 왔다. 주먹도끼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그러나 모든 도구는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기술은 사람을 해방하는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가. 번영을 만드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키우는가. 일을 덜어 주는가, 아니면 일에서 의미를 빼앗는가. 이 물음들이 지금처럼 다급했던 적은 없다. 인류의 행동이 오늘날처럼 깊고, 빠르고, 되돌릴 수 없게 자기 미래를 정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SOLIS는 이 물음들 앞에 서서 하나의 결론을 끌어낸다. 기술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를 휩쓸어 가는 막을 수 없는 물결이 아니라, 그 쓰임을 우리가 정하는 도구다.

미래 연구와 시나리오 계획

기후의 변화,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의 개척, 세계 지역들 사이의 힘의 이동은 더는 우연에 맡겨 둘 수 없는 미래를 빚고 있다. 그래서 좋은 사회는 미래를 내다보기만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준비된 채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SOLIS는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는 자체 기관을 운영한다. 기술적, 사회적, 생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나리오를 그리는 연구소와 연구 연합이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광범위한 자동화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 일에는 학문과 사업체와 시민 전체가 함께하여,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함께 앞을 내다본다.

결정적인 것은 이 미래 연구가 숨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버리는 그림자 모임은 없다. 시나리오와 분석은 공개되고, 학교와 미디어가 그것을 다루며, 시민의 참여로 흘러 들어가, 사회 전체가 함께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한 도시는 해마다 미래 포럼을 열어, 시민들이 다가올 변화를 알고, 전문가와 논쟁하고, 스스로 자극을 보탠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기술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적 논쟁은 어떤 흐름이 통제를 벗어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벌어진다. 그렇게 큰 격변은 그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빚는 것이 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예견에서다.

도구로서의 기술

인공지능, 로봇 공학, 생명공학 같은 강력한 기술은 SOLIS에서 윤리적으로 심사받고 적극적으로 조종된다. 새로운 기술은 모두 그 경제적 쓸모와 함께 사회적, 생태적, 심리적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음을 받는다. 유전 물질의 변형, 양자 컴퓨팅, 신경 인터페이스 같은 방법은 시장의 힘에만 맡겨지지 않는다. 윤리 지침과 공개 토론이 함께한다. 전문 기구인 기술 평의회, 윤리 평의회, 시민 포럼 같은 자체 제도가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도입하며, 무엇을 멈추거나 바꿔야 하는지 함께 정한다. 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은 기금이 지원한다. 불리한 처지의 아이들이 배우기 쉽게 하는 앱, 에너지 전환을 떠받치는 저장 장치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주의를 돈으로 바꾸기만 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 모든 것 위에 분명한 기본 태도가 있다. 기술은 사람을 더 약하고, 더 의존적이고, 더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주권자로 남는다. 기계가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조종한다. 알고리즘이 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법을 존중하는 알고리즘을 쓴다. 생명공학이 종의 미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개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정한다.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인류가 감시와 비인간화의 세계로 미끄러질지, 아니면 가능성과 새로운 의미의 세계로 올라설지를 함께 정한다. SOLIS는 이 키를 손에 쥔다. 기술을 쓰되, 기술에 쓰이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인류

인공지능은 평범한 도구가 아니다. 배울 줄 알고, 스스로 나아지며, 어쩌면 자율적이고, 어쩌면 어떤 인간의 제도보다 강력하다. 고전적인 체계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을 위한 순수한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위협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SOLIS는 세 번째 길을 간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에서 함께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을 지배하거나, 대신하거나, 무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돕고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분명한 윤리적 한계가 적용된다.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단조로운 과제를 맡을 수 있지만, 생명과 존엄과 자유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코 맡을 수 없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전쟁을 벌여서도, 누구도 모르게 조작해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신해서도 안 된다. 병원의 인

공지능은 병상과 수단을 배분할 수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결정은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 특히 강력한 시스템은 엄격하고, 공동이며, 국제적인 감독을 받고, 결코 개인이나 사업체나 한 질서가 홀로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대기도, 중심 자원에 대한 독점도 허락하지 않는 권력의 질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되어 있다. 모든 강력한 시스템에는 사람이 쥐고 있는 스위치가 있으며, 그것을 멈추는 능력은 실제 비상사태처럼 훈련한다.

인공지능이 행정, 교육, 보건, 사법 같은 공공 영역에서 작동하는 곳에서는 자기 결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블랙박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열람하고,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독립 기관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그렇게 지식과 결정의 분리가 지켜지고, 마지막 말은 사람이 한다. 이 모든 것 위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넓은 사회적 대화가 있다. 그것은 전문 기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자기를 만든 이들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한다.

◆ 기계 위의 사람

마지막 말을 사람이 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한 번도 명령하지 않고도 그를 지배할 수 있다. 상황을 미리 추리고, 가능성을 고르고, 끝에 가서는 고개만 끄덕이면 되도록 결정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다. SOLIS는 이 조용한 장악에 단단한 장치로 맞선다. 영향이 큰 모든 결정에서 시스템은 하나의 권고를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내놓지 않고, 정말로 서로 다른 여러 길을 그 목표 충돌과 함께 내놓는다. 비전문가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맹목적인 신뢰를 대신하고, 따로 지정된 검토 시스템은 가장 그럴

듯한 권고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물음의 틀, 곧 무엇이 선택지에 오르고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를 정하는 일은 사람에게 남는다. 기계는 대답을 밝힌다. 물음은 사람이 던진다.

디지털 공유재

디지털은 현대 사회의 신경계다. 오늘날 소통과 경제와 지식과 권력, 거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거쳐 흐른다. 오늘날 많은 체계에서 이 신경계는 사적으로 지배된다. 몇몇 기업이 플랫폼을 통제하고, 데이터는 원료처럼 착취되며,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각할지를 보이지 않게 정한다. SOLIS는 이와 달리 디지털 질서를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기반 시설로 이해한다. 디지털 질서는 사람을 섬기며, 그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 디지털 기반 시설은 공유재다.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간과 기반 기술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공동으로 관리되고 보호되며, 어떤 독점에도 지배받지 않고, 접근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다. 외딴 지역의 사람도 대도시의 사람과 같은 기본 디지털 공급을 받는다. 여기에 자기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이어진다. 모든 사람은 누가 자기 데이터를 써도 되는지 스스로 정하고, 몰래 이용하는 일도, 사적인 것을 거래하는 일도 없으며, 앱을 쓰는 사람은 통제권을 지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든 열람하고 철회할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 투명성이 더해진다. 공공 데이터 플랫폼은 사업과 결정을 따라가 볼 수 있게 하고, 공동체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공개되고 검증할 수 있으며, 통제권은 숨은 곳이 아

니라 사회에 있어서, 모든 시민이 공공 입찰 절차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따라가 볼 수 있다. 그로써 디지털 신경계는 사적 지배에서 풀려난다. 데이터의 착취도, 보이지 않는 조종도,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기술도 없다. 디지털은 모두의 것이고,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며, 기술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다.

◆ 비대칭적 투명성

이 질서가 기대는 열림은 그 안에 위험을 품고 있다. 권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바로 그 데이터와 센서의 기반 시설이 시민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투명성은 원형 감옥이 될 것이다. 그래서 SOLIS는 그 방향을 의식적으로 뒤집는다. 완전한 투명함은 권력에, 관직과 기금과 알고리즘에 적용되고, 개인의 삶은 사생활의 보호 아래 놓인다. 사생활은 권리이고, 데이터 절약은 원칙이며, 사람은 자기에 관한 데이터의 주인으로 남는다. 남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드러난다. 그저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가려진 채로 남는다.

트랜스휴머니즘과 의식

인류의 역사는 확장의 역사다. 손을 늘이는 도구에서 생각을 빠르게 하는 컴퓨터까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점에 서 있다. 기술이 더는 우리가 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지점이다. 신경 인터페이스, 임플란트, 유전 물질에 대한 개입, 우리와 긴밀히 이어진 보조 시스템이다. SOLIS는 이 미래 앞에 순진하게도 광신적으로도 서지 않는다. 그것이 기회이자 위험이며 최고의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의식으로 그 앞에 선다.

그래서 몸과 정신을 확장하는 기술은 통째로 금지하지 않되 순진하게 열광하지도 않으면서 엄격하게 윤리적으로 심사받는다. 모든 새로운 가능성은 기술적, 의학적 차원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철학적 차원 등 여러 차원에서 검토되며, 안전을 보장하고, 존엄과 정체성을 존중하며, 공정을 지킬 때에만 도입될 수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되돌려 주는 임플란트는 지원받는다. 부유한 소수에게 정신적 우월을 안겨 줄 개입은 불평등을 굳히기에 제동이 걸린다. 여기서 곧바로, 확장의 강요도 두 계급의 사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여와 존엄과 권리는 결코 기술적 개선에 좌우되지 않는다. 자신을 확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남는다. 어떤 직업도 어떤 기회도 임플란트에 묶여서는 안 되며, 부모가 개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아이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기본권의 절대적 바닥이 작동한다. 존엄은 모든 최적화보다 앞선다.

이 물음들은 사람의 자기 이해와 관계와 유한성을 건드리기에, 경계가 옮겨질 때마다 철학적, 윤리적 성찰이 함께한다. 의식을 디지털화하거나 늘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연구조차 교조적으로 금지하지 않되, 정체성과 의미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고, 남용과 소외를 막는 분명한 한계에 묶인다. 이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는 물음은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만큼 진지하게 다뤄진다. 그렇게 인류는 이 문턱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다.

우주 연구와 행성 간 윤리

수천 년 동안 사람은 그리움을 품고 별을 올려다보았고, 오늘날 그 눈길은 더는 꿈이 아니다. 달 기지가 계획되고, 화성 탐사가 준비되며, 소행성의 자원 채굴이 개발되고 있다. 그로써 인류가 이 새로운 무대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물음이 떠오른다. SOLIS는 여기에 분명히 답한다. 우주는 개별 국가나 기업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동 유산이자 넓어진 삶의 공간이다. 그래서 우주에서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큰 사업은 경주가 아니라 여러 질서와 분과의 공동 임무이며, 과학적 교류와 열린 발명이 앞에 서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배제된다. 자원 채굴은 분명한 생태적, 윤리적,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그 결과는 검토되고 제한되며, 수익은 먼저 손을 뻗는 이들만이 아니라 공동 기금을 통해 인류 전체에게 돌아가고, 행성 층위가 허가와 감독을 맡는다. 그래서 소행성을 개발하려는 연합은 생태적 위험이 없다는 것과 수익의 일부가 공동의 재화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게다가 우주는 원료 창고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삶의 공간이며, 어쩌면 다른 생명 형태의 고향이다. 그래서 SOLIS는 있을 수 있는 외계 생명을 어떻게 대할지, 양방향으로 생물이 옮겨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공정한 참여를 어떻게 지킬지를 미리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 팀에는 윤리학자와 철학자도 함께 일하고, 미지의 것을 다루는 분명한 규약이 있으며, 인류는 서로 다투는 경쟁 집단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로 뭉친 문명으로 나선다. 그렇게 인류는 무자비한 정복자가 아니라 배우며 책임을 아는 종으로서 우주로 간다.

위험과 재난 관리

좋은 시절만을 믿고 짓는 사회는 모래 위에 짓는다. 자연재해, 세계적 위기, 기술적 위험, 우주에서 오는 위협은 연결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명의 현실에 속한다. SOLIS는 이를 체념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동한다.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 있고, 튼튼하고 배울 줄 알며 유연한 체계를 지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위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평가하는 구조가 포함된다. 학문과 기술과 의학을 아우르는 팀,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조기 경보 체계, 그리고 체계적인 시나리오 계획이다. 그것은 두려움의 연습이 아니다. 목표가 분명한 대비의 토대다. 그런 체계가 이례적인 위협을 일찍 알아차리면, 몇 시간 안에 평가가 나오고, 지구 방위의 단계가 발령되며, 수단이 재배치된다. 이때 재난 대비는 국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의 사업이다. 조기 경보 체계는 국제적으로 이어져 있고, 비상 계획은 모든 층위에 있으며, 구호 그물은 비상사태가 오기 전에 준비되고, 훈련되고, 갖추어져 있다. 태양 폭풍이 전력망을 위협하면 분산된 에너지 공급이 고장을 받아 내고, 여러 겹으로 확보된 연결망이 공동체를 붙들어 둔다.

그러나 회복력은 기술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생태적이다. 튼튼한 공동체와 이웃, 정보를 갖추고 침착한 사람들, 그리고 위기를 완충할 수 있는 풍경과 도시다. 그래서 재난 뒤에 사람들은 물질적 도움과 함께 마음을 받쳐 주는 공동체의 구조에도 기댈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이 질서의 토대에 속한 회복력에 걸맞게 시련

에서 더 강해져 나오는 회복력 있는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느낀다.

우주 속 인류의 자리

모든 기술과 모든 체계의 끝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만이 아니라, 더 큰 물음이 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 자신에게, 서로에게, 우주에게 무엇이고 싶은가. SOLIS는 이 물음에 오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답한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도 창조의 면류관도 아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아직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연관의 일부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에서 큰 책임이 자라난다. 옛 논리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고, 더 강한 자가 정한다고 여겼다. SOLIS는 이 논리를 뒤집는다. 지구 밖의 자원을 쓸 때 우리는 눈먼 착취자가 아니라 신중한 관리자로서 쓴다. 낯선 생명을 만날 때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동반자로 나선다. 우주를 탐구할 때 우리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연약함을 의식하며 탐구한다. 우리의 의미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태는 것으로 잰다.

기술의 진보와 확장은 내면의 성장, 곧 지혜와 연민과 신중함과 함께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SOLIS는 위대함을 확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잰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에 정착하지 않는다. 먼저 무엇을 위해서인지 묻는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닿는 범위만이 아니라 성찰하는 능력도 키우는 기술을 개발한다. 우리는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빛나는 문화를 짓는다. 여러 세대에 걸쳐 먼 별로 가는 배는 기술적 모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의미와 인간다움을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이냐는 물음일 것이다. 큰 목표는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부유하게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이 우주에 주고, 문화와 아름다움과 지식을 바깥으로 실어 나르며, 정복하기만 하는 대신 배우고, 기술적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빛나는 흔적을 남기는 문명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알려진 최초의 종일지 모른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된다.

장

II



아이와 가족

레비는 마라를 임신 석 달째부터 알던 조산사와 함께 조산원에서 태어났고, 요나스는 그 뒤로 반년 동안 근무하지 않았지만 돌봄 팀에서 그를 잊은 사람은 없었다. 이제 레비는 반 친구들과 함께 나무 위의 집을 짓고 있었고, 처음으로 스스로 셈을 했다. 이다는 방향을 찾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석 달은 바닷가에서 망을 짓는 사업체에서, 석 달은 작업장에서 지냈는데, 작업장은 두 주 만에 그만두었다. 그것을 이력서에 적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의 행위이고, 사회가 새로워지는 순간이며, 모두에게 책임을 지라는 초대다. 이 책이 구상하는 모든 것은 오늘 아직 아이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떠받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떠받칠 수 있을지는 그들의 첫 몇 해에, 그들의 가족과 학교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 줄 누군가가 있느냐는 물음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이 장은 모든 지속적 변화가 기대는 토대를 다룬다.

출생과 이른 유년기

SOLIS는 출생을 순전히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의 과제로 이해한다. 모든 아이는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소중하다. 처음부터 모든 임신부는 기여나 지위나 사는 곳과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동반, 곧 예방과 분만 지원과 산후 돌봄을 받으며, 이를 떠받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돌봄의 문화다. 아이는 어머니하고만 자라지 않기에, 가까운 모든 사람이 함께한다. 아버지, 공동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선택한 가족이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인정된다. 아버지는 형식적인 육아 휴직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시작될 때 정말로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그물을 얻는다.

이때 이른 유년기의 돌봄은 그저 맡겨 두는 곳이 아니라 다정하게 북돋우는 곳이다. 작은 무리, 훈련받은 전문가, 놀이와 창의

성과 애착을 위한 공간이 딱딱한 시간표를 대신하며, 조기 학습의 강요는 없고 아이에 맞춘 제안이 있다. 부모 노릇은 흔히 고되고 외롭기에, 아무도 홀로 서 있지 않다. 가족 센터와 조산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이웃은 서로 돕는 일을 꾸리며, 관료제와 결핍이 만드는 장벽은 의도적으로 허물어서, 많이 보탤 수 없는 젊은 어머니도 부끄러움 없이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삶의 첫 몇 해는 뇌와 몸과 감정을 빚고, 받쳐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좋은 부모가 되며, 잘 자라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이득이다. 사람의 첫 숨부터 존엄과 공동체로 감싸는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육과 북돋움

아이들은 타고난 배움꾼이다. 말을 하기도 전에 '왜'를 묻고, 강요가 아니라 본성에서 나와 발견하고, 더듬고, 논다. SOLIS는 이 타고난 배움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지켜지고 커지도록 교육을 짠다. 오늘날의 학교 체계는 흔히 모든 아이를 같은 속도로 같은 내용을 거쳐 같은 시험으로 이끌려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에게는 너무 벅차고 어떤 아이에게는 너무 쉽다. 여기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자기 관심에 따라, 자기 강점 위에서 배운다. 자연에 푹 빠진 아이는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다. 숫자에 불타는 아이는 낙인찍히지 않고 더 큰 도전을 얻는다. 예술에서 피어나는 아이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고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으로 북돋움을 받는다.

이 교육에서 실수는 흠이 아니라 아직 무언가 발견할 것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표시다. 나쁜 점수에 대한 두려움과 똑똑한 아

이와 둔한 아이로의 구분 대신, 다르게 해 보고, 돌아보고, 자라라는 격려가 들어선다. 이때 교사는 그저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멘토로서, 배움의 길을 고르고 정서적, 사회적, 창의적 성장을 돕는다. 그것은 칠판 앞의 강의는 줄고 공동의 활동과 관계를 가꾸는 일이 느는 것을 뜻하며, 학교에서는 교사와 사회 교육 전문가와 예술가와 연구자가 팀으로 함께 일한다. 창의성과 협력과 사회적 지능은 전통적인 과목과 대등하게 선다. 예술은 부과목이 아니고, 팀으로 일하는 것은 핵심 능력이며, 공감을 연습하는 일은 사실에 대한 지식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맞물리는지는 하나의 활동이 보여준다. 아이들이 함께 나무 위의 집을 지으면, 거기서 구조 역학과 치수의 수학, 알맞은 나무와 자연 보호의 생물학, 기록의 언어, 예술의 꾸밈, 협력과 책임의 윤리가 하나로 이어진다. 거기서 시험을 위한 고립된 암기와는 아무 상관 없는, 살아 있고 실천에 가까운 배움이 생겨난다. 이런 교육은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며, 변화를 빚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성찰적이며 용감한 사람들을 길러 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교육은 교육을 다루는 장이 뒷받침하는 성숙함과 이어진다. 처음부터 순종을 연습시키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묻는 능력을 가꾼다. 이번 세기의 도전은 지지난 세기의 학교로는 풀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의 형태

가족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힘 있는 사회적 짜임에 속하지만, 굳어 버린 모델이 아니다. 시대와 문화와 삶의 조건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SOLIS는 가족을 고정된 틀이 아니라 살아 있

고, 움직이며, 사랑이 깃든 그물로 이해하며, 겉모습과 상관없이 돌봄과 책임과 다정함이 떠받치는 모든 형태의 가족적 유대를 튼튼하게 한다.

그로써 오늘날 많은 체계에서 하나의 가족 형태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그저 견뎌 주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 무너진다. 동성 부모, 재혼 가족, 한부모, 생물학적 유대가 없는 선택한 가족,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 형태는 돌봄과 서로에 대한 존중에 기대는 한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권리와 지원에서의 차별도, 바깥에서 내리는 도덕적 판결도, 전통과 현대 사이의 서열도 없다. 이때 중심에 있는 것은 사회의 도덕관이 아니라 아이의 안녕이다. 지원과 교육과 건강과 돌봄은 아이들과 가까운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맞추어지지, 그들이 특정한 모델에 맞느냐에 맞추어지지 않는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는 부모 두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동성 커플은 관료적 장벽 없이 함께 부모 노릇을 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친구 어른들로 이루어진 선택한 가족은 온전한 가족으로 여겨진다. SOLIS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을 뜻한다.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서 공동체는 심판하는 대신 동반한다.

가족이 정말로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일하는 방식이 다르게 짜여 있다. 유연한 시간제, 나누어 맡는 일자리, 알맞게 제한된 재택근무, 모든 성별을 위한 육아 휴직,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치가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기둥이다. 아버지는 사업체에서의 자기 길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고, 손주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조부모는 가족 그물의 인정받는 일부로 여겨진다. 이때 돌봄과 양육의 일은 문화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 질서가 정하듯 그것은 가치 포인트와 적립 포인트를 가져다주는 기여로 계산된다. 사적인 희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로서다. 그렇게 가족은 지나친 짐을 지는 대신 짐을 덜고, 커지는 압박 아래 무너지는 사적

인 공사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떠받치는 가치가 된다. 가족에 투자하는 사회는 길게 보아 결속과 회복력과 마음의 건강을 쌓는다.

보호받는 공간과 정서의 성장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먹을거리와 머리 위의 지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마음의 안전이 필요하다. 실수해도 되고, 믿음을 배우고, 감정을 드러내고,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SOLIS에서 마음의 건강은 곁가지가 아니라 중심 목표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먼저 약속을 잡거나 공식 경로를 거치지 않고도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믿을 만한 어른이 포함된다. 눈에 띄고 다가가기 쉬운 상담 교사, 어린이집의 고정된 담당 교사, 문이 열려 있는 이웃 센터는 아이들에게 누군가 자기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 준다는 확신을 준다. 그것이 불안과 무력감을 줄이고, 용기와 자기 효능감을 키운다. 여기에 회복력과 마음 챙김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상의 고정된 부분으로 더해진다. 마음의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꿀 때 자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자기 감정을 알아보고 다스리고, 남의 처지에 서 보고, 공정하게 다투는 법을 배우며, 좌절이 삶의 일부라는 것과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경험한다.

디지털 세계는 아이들에게 놀이터이자 위험이기에, 미디어 역량은 일찍부터 길러진다. 아이는 기기를 다루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진짜 정보와 조작의 차이를 알아보며, 온라인의 호응이 자기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책이 다른 곳에서 뒷받침하

는 성숙함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이가 괴롭힘의 표적이 되면, 그 아이는 혼자 남지 않는다. 구조가 일찍 개입하고, 그저 벌주는 대신 진정한 관계 회복의 일이 들어선다. 그것은 피해를 입은 아이를 튼튼하게 하면서, 괴롭힌 아이도 흔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법 체계를 빚는 것과 같은 회복의 정신이다. 그렇게 SOLIS는 머리만큼 마음을 진지하게 대한다. 마음이 튼튼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떠받치는 성찰적이고 공감하는 어른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정체성, 자기 찾기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와도 다르다. 몸과 정신이 빠르게 변하고, 전에는 거의 없던 물음들이 밀려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내 삶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유와 책임과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가. 많은 사회에서 이 시기는 문제의 시기로 여겨지고, 청소년은 방해 요소나 통제해야 할 위험으로 다뤄진다. SOLIS는 이와 달리 청소년기를 위협이 아니라, 찾고, 시도하고, 자라는 값진 이행의 시간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한 시간으로 이해한다.

젊은이들에게는 곧바로 평가받거나 벌받지 않고 자신을 발견할 공간이 필요하며, SOLIS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창작 작업장, 운동 시설, 청소년 센터,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참여 활동이다. 그래서 청소년 센터는 당구대만이 아니라 음악, 환경 활동, 창업 아이디어, 철학, 연극을 위한 작업장을 내놓고, 거기서 청소년들은 또래와 어른들과 함께 무엇이 자기를 움직이는지 알아낸다. 자기 찾기의 동반은 압박도 깎아내림도 없이 이

루어진다. 청소년은 묻고, 의심하고, 자신을 새로 만들 권리가 있으며, 멘토링과 상담과 또래 그물은 믿음과 존중과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꺾지 않고 튼튼하게 하도록 짜여 있다. 그리고 찾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질서는 그 시간을 분명히 비워 둔다. 학교와 직업 교육 사이에는 방향을 찾는 시기가 있어서, 젊은이들은 여행하고, 함께 일하고, 시도하고, 실패해도 되며, 어떤 이력서도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벌주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성, 자기 젠더, 신앙, 정치적 입장 같은 예민한 물음도 터져 나온다. SOLIS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열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보호받고 세심한 틀 안에서 전문적인 동반과 함께 자기 목소리를 찾을 기회를 얻는다. 이것은 그들을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 아니라, 이 책이 앞에서 펼친 성숙함과 정체성에 대한 움직이는 이해의 정신 그대로, 그들이 자기만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이것은 결정적이다. 자신감 있고 잘 동반받은 젊은이는 충만한 삶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가지며, 청소년을 튼튼하게 하는 사회는 창의성과 발명의 힘과 안정을 얻는다. 아이와 청소년은 미래의 어른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이미 자기 권리와 필요와 꿈을 지닌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정하고, 이를 인정하는 질서는 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장

12



실현과 이행

마라의 어머니 로자는 강가의 도시가 등대가 되었을 때 스물아홉 살이었다. 추첨으로 뽑힌 이들이 함께한 첫 의회, 공유재가 된 첫 정수장, 아무도 추위에 떨지 않은 첫 겨울이었다. 로자는 그 이전의 해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협동조합이 아직 기업들과 나란히 서 있었고, 도시가 그들의 허락 없이 사는 법을 배우던 때였다. 그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서 땅을 사들이려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결국 아무도 팔지 않게 될 때까지였다. "우리는 그들을 이긴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들을 쓸모없게 만든 거지."

ESOLIS 같은 질서는 스위치 하나로 들여올 수 없다. 사회를 하룻밤 사이에 새로 프로그래밍할 수도, 모든 두려움과 막힘을 논쟁으로 지워 버릴 수도 없으며, 결정적으로 이런 질서를 그 자신의 토대를 배신하지 않고 강제력으로 세울 수도 없다. 존엄과 성숙에 기대는 질서는 쿠데타로 설치될 수 없다. 그것은 설득과 성공한 본보기로 얻어 내야 한다. 그래서 SOLIS는 시간과 인내와 용기, 그리고 실수에서 배우는 문화를 요구하는 길고 의식적인 변화다. 이 장은 그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마주칠 저항, 옛 재산의 운명, 그리고 길이 아직 옳은지 알아볼 수 있는 잣대를 그린다.

기존의 것에서 SOLIS로 가는 길

길은 서로 맞물리는 세 국면을 지난다. 처음에는 의식의 변화가 있다. 구조가 바뀌기 전에 머리와 가슴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만이 아니라 가능성도 드러내는 정직한 현황 점검, 그리고 미디어와 예술과 학문과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대로 계속 가고 싶은지 감히 묻는 용감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 질서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영화, 시민과 전문가와 활동가를 한자리에 모으는 대화 모임, 아이들이 사실을 외우는 대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교재, 그렇게 시작된다.

그다음에는 등대, 곧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장소와 사업을 세운다.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도시, 이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업체, 새로운 길을 시험하는 학교와 연구 그물이다. 한 작은 도시가 공급을 재생 가능한 원천으로 바꾸고, 추첨

으로 뽑힌 시민이 함께하는 의회를 들이고, 따라 하는 이들을 찾는 본보기가 된다. 이런 사례는 영감을 주고, 변화가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추진력을 만든다.

충분한 사람들이 설득되고 충분한 사례가 버텨 줄 때에야 체계의 변화가 시작된다. 새로운 법의 틀, 새로운 경제적 유인, 새로운 제도다. 이것 역시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뒷걸음질과 함께, 관찰과 교정을 곁들이며 일어난다. 하나의 원칙이 헌법에 적혀 있어도, 행정과 경제와 사회가 그것을 몸에 익히기까지는 몇 해가 걸린다. 그래서 모든 걸음에는 동반과 관찰과 되먹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SOLIS로의 이행은 여러 세대에 걸친 사업이며, 어쩌면 인류가 지금껏 떠맡은 가장 큰 사업이다.

◆ 정직한 진단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첫째, 이 이행에는 보장이 없으며, 그것은 관성만이 아니라 진짜 저항에 부딪힌다. 둘째, 더 무거운 것으로, SOLIS는 권력과 번영을 새로 나눈다. 기존 질서 아래에서 둘 다를 집중해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고 세운 제도들과 함께, 논거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걸린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들이 설득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구상은 순진하며, SOLIS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다. 강제는 포기하지만 현실감각은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이 저항을 어떻게 다룰지는 행위자와 저항을 다루는 대목의 주제다.

전환의 단계

SOLIS로의 전환은 갑작스러운 격변이 아니라, 단계들이 서로를 딛고 쌓이며 서로를 키우는 이어달리기다. 이때 순서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내적 논리를 따른다. 처음에는 교육이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중의 모든 개혁이 허공을 치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대학에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유년기에 시작되며, 사람들이 애초에 변화를 빚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 뒤를 가장 강력한 지렛대인 경제가 잇는다. 유인은 단기적 이익에서 오래 가고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 활동으로 옮겨 가며, 참여, 윤리적 목표, 사회와 지구에 대한 책임이라는 달라진 사업체 문화가 순수한 이윤의 논리를 대신한다. 경제가 바뀌면 권력의 질서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제도적 구조가 변화를 떠받치도록 투명성을 더하고, 윤리적 감독을 더하고, 참여를 더하며, 차츰 이 책이 그리는 고리의 기관들이 모습을 갖춘다. 그와 나란히 부드러운 요소, 곧 가치와 이야기와 성공과 행복과 의미에 대한 이해에 힘을 쏟는다. SOLIS에서 성공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오래 남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끝에 가서 현지의 한 사업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차이를 존중하며, 공동의 원칙을 나누는 세계적 과정이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단계와 우선순위와 책임을 정하는 로드맵, 사람들을 그저 영향받는 이들이 아니라 참여자로 만드는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검증된 것을 퍼뜨리는 분명한 길을 갖춘 시범 사업, 그리고 지식과 수단을 나누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환은 혼란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함께 떠받치는 과정이 된다.

행위자, 역할, 저항

SOLIS로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떠받친다. 여기서 세 역할이 중심에 선다. 개척자는 흔히 물살을 거슬러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생각을 시험하는 용감한 첫 사람들이다. 사회적 기업가, 지역 공동체, 교사와 예술가가 처음에는 이론일 뿐인 것을 앞서 살아 보이며 추진력을 만든다. 다리 놓는 이들은 덜 눈에 띄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시민과 정치, 학문과 경제, 젊은이와 노인처럼 그렇지 않으면 갈라져 있을 것을 한데 모은다. 그들은 세계와 세계 사이를 통역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법을 찾는 공간을 만든다. 끝으로 파수꾼은 윤리와 법을 지킨다. 윤리 평의회, 옴부즈맨, 부정을 드러내는 이들을 위한 플랫폼은 변화가 눈멀거나 무자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SOLIS를 그 자신의 요구에 붙들어 둔다.

◆ 저항이라고 다 같은 저항이 아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지만, 저항은 한 종류가 아니다. 저항의 일부는 정당한 신호다. 사람들이 어디서 두려워하는지, 어디에 진짜 이해충돌이 있는지, 어디서 누군가 간과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시범 사업이 임대료가 올라 반대에 부딪히면, 그것은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균형이 빠져 있다는 표시다. 이런 저항은 귀 기울여 듣고 더 나은 해법으로 옮긴다. 그러나 저항의 다른 일부는 개선을 위한 신호가 아니라, 권력과 번영을 잃는 이들이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며, 오해에 기대고 있지 않기에 대화로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 두 종류를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이야말로 큰 구상들이 무너진 순진함

이다. SOLIS는 둘을 구분하고 각각을 그 나름으로 대한다. 모두가 설득되지는 않을 것이고, 모두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지고 존중받을 기회를 얻는다.

◆ 허락 대신 나란히 짓기

힘 있는 자들은 자기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에, SOLIS는 그들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 전략은 기존의 권력 중심을 정복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그냥 더 잘 작동하는 나란한 구조를 짓는 데 있다. 협동조합 사업체, 공유재로 이루어진 공급,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함께하는 의회, 열린 지식 그물, 회복력 있고 넓게 펼쳐진 공급망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옛 구조를 앞지르고 받아들일 때까지 자라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행은 정복보다는 쓸모없게 만드는 것으로 얻어진다. 새 질서가 사람들을 그저 더 잘 섬기는 곳에서 옛 질서는 기댈 곳을 잃는다. 이것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진짜 길이다. SOLIS가 거부하는 강제 없이 가능하고, 새 질서를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 내는 것 위에 세우기 때문이다.

◆ 이름을 붙인 위험

이 길은 실패할 수 있으며, 위험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위험에 대한 보호다. 첫째는 장악이다. 새 제도가 바로 그것이 대신해야 할 이해관계에 넘어가는 것이다. 권력의 질서, 추첨, 순환, 해임권이 이에 맞서며, 오래 가는 전유를 기계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둘째는 경제적 질식이다. 적대적인 시장에 박힌 SOLIS의 섬이 굶주리거나 가격 경쟁에 밀리는 것이다. 경계의 통제된 막, 그리고 고립된 개별 시도 대신 회복력 있고 이어진 협력적 구조를 세우는 일이 이에 맞선다. 셋째는 공동화다. SOLIS의 말은 빌려 쓰면서 그 내용은 비워 버리는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잴 수 있는 관찰, 그리고 공동화를 알아보게 하는 시민의 성숙함이 이에

맞선다. 넷째는 퇴보다. 질서가 시간이 지나며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깊은 시민 교육, 그리고 굳어 버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에 맞선다. 이 위험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회는 그것들에 훨씬 덜 무너진다.

◆ 강제는 없지만 방위는 있다

끝으로 모든 것이 걸린 구분이 적용된다. SOLIS는 공격을 포기하고, 강제력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을 포기한다. 그것은 전복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이들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를 포기한다는 것이 방위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의로운 무언가를 이룬 사회는 관용의 이름으로 그것이 파괴되거나 방해받거나 탈취되도록 내버려 둘 의무가 없다. 경계는 안전을 다루는 장에서처럼 그어진다. 공격은 금지되고, 방위는 정당하다. SOLIS는 자기가 세운 것을 허물려는 이들에게서 그것을 지키되, 스스로 자기가 거부하는 침략자가 되지 않는다.

옛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행의 가장 어려운 물음은 이미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백만장자의 집, 기업의 자본, 세 세대째 한 가족의 것인 땅, 한 장인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다. 이 물음을 피해 가는 구상은 스케치로 남는다. SOLIS는 이 물음에 하나의 원칙과 네 가지 규칙으로 답한다. 원칙은 이렇다.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빼앗기는 것은 없지만, 한때 권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으로 남는 것도 없다. 이행은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거둔다. 그리고 그

일은 시민 전체가 질서를 받아들인 곳에서만 일어나며, 결코 밖에서,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첫째 규칙은 개인의 재산에 관한 것이다. 누군가 사는 집, 그가 꾸리는 작업장, 한 가족이 일구는 땅은 그나 그 가족에게 남는다. 소유로서, 또는 땅 자체가 공유재가 되는 곳에서는 지속적인 이용권으로서다. 땅을 더는 팔 수 없게 된 사람도 그 땅에 계속 짓고, 살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둘째 규칙은 금융 재산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공개된 환율로 대비의 문턱까지 가치 포인트로 바뀐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모습을 바꾼다. 생산 기금의 지분이 되어, 옛 소유자에게 평생 가치 포인트로 된 수익을 보장하되, 의결권도, 처분권도, 매각도 없다. 부는 좋은 삶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남을 좌우하는 지렛대로서는 해체된다. 셋째 규칙은 기업에 관한 것이다. 기업은 이 질서의 뜻에서의 사업체가 된다. 직원은 참여자가 되고, 경영은 임기가 있는 자리가 되며, 지금까지의 소유자는 자기 자본에 대해 다른 누구와도 같은 규칙에 따라 기금 지분을 받는다. 기계와 건물과 지식은 그것이 필요한 곳, 곧 사업체에 남는다. 넷째 규칙은 빚에 관한 것이다. 질서 안의 사람과 사업체 사이의 빚은 공정한 한도까지 가치 포인트로 갚고, 그것을 넘는 부분은 소멸한다. 이자 없는 질서는 이자 빚을 이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깥 세계에 대한 빚은 그대로 남으며, 새 질서가 사기꾼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막을 통해 힘닿는 대로 갚는다.

이 규칙들은 노후 보장처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두 체계가 나란히 돌아가는 긴 기간이 있고, 옛 질서 아래에서 삶을 계획한 이들을 위한 보장된 하한이 있다. 그리고 고리에 매인 사람이 되기보다 부자로 남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떠날 권리와 함께 적용된다. 떠나는 사람은 들고 갈 수 있는 것을 가져가고, 질서의 것, 곧 땅과 물과 권력은 남겨 둔다. 그렇게 이행은 약탈도, 기존의 것

에 대한 항복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옛 재산을 더는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언어로 옮기는 일이다.

소통과 설득

어떤 생각도, 아무리 좋더라도 소통 없이는 살지 못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와 관련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SOLIS에서 소통은 덧붙이는 것도 광고 기계도 아니라 전환의 심장이다. 소통은 잇고, 설명하고, 영감을 주고, 움직인다.

무엇보다 소통은 무엇이 일어나는지만이 아니라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오늘날 너무나 자주 개혁은 밀어붙여지고 법은 의결되지만,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불신과 움츠림을 키운다. 그래서 SOLIS는 언제나 무엇을 위해서이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답한다. 한 도시가 재생 에너지로 바꿀 때는 기술적 세부만 알리지 않는다. 이 변화가 왜 필요한지, 길게 보아 무엇을 뜻하는지, 각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소통은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다. 여성 노동자, 청소년, 연금 생활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기업가와 똑같이 향하며, 분명하고 세심한 말로, 전문가의 은어 없이 한다. 고전적인 미디어부터 디지털 매체를 거쳐 현지의 행사와 예술의 수단까지 모든 통로를 쓴다. 그래서 한 도시의 변화는 행정 명령으로만이 아니라 음악과 대화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축제로도 시작한다.

끝으로 결정적인 것은 소통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대화로 흐른다는 점이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던

지고, 의심을 말하고,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안에서 책임자들은 주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말하며, 실수와 불확실함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밀실도 비밀주의도 없이 말한다. 그래서 새 법은 설명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들이 되묻고, 함께 빚고, 우려를 말하는 열린 기간이 있다. 그렇게 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떠받치는 사회가 생겨난다.

국제적 확산과 적응

SOLIS는 세계 위에 덮어씌우는 완성된 틀이 아니다. 모든 사회에는 저마다의 역사와 상징과 자원과 강점과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SOLIS는 스스로를 수출품이 아니라 열리고 적응할 수 있는 모델로 이해한다. 토대와 윤리적 틀을 내놓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현지에서 생겨난다. 다섯 가지 토대는 어디서나 같다.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등뼈를 이룬다. 다른 것은 방법이다. 어떤 제도를 세우고, 어떤 길을 고르며, 어떤 상징과 의례가 체계를 떠받칠지는 각 사회에 달려 있다.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전해 내려온 지식 체계의 보호가 중심에 서고, 탈산업화된 대도시권에서는 사회적, 기술적 발명이, 전쟁의 상처를 입은 지역에서는 고리의 기관들이 생겨나기 전에 먼저 회복력을 쌓는 일이 중심에 선다. 그렇게 모든 사회는 낯선 모델을 덮어쓰는 대신 그 틀을 자기만의 현실로 채운다.

SOLIS가 고립된 섬들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물이 각자의 길을 잇는다. 그것을 통해 지식이 나누어진다. 어떤 접근이 검증되었는지, 어디서 뒷걸음질이 있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

는지다. 수단은 가난한 지역도 같은 기회를 얻도록 나누고, 기준은 서로 맞추어, 생태와 인권의 원칙이 그 실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어디서나 적용되게 한다. SOLIS로 사는 공동체들의 그물은 모든 대륙에서 교류하고, 공동 사업을 펼치며, 현지의 고유함을 깎아 내지 않으면서 경험을 나눈다. 이런 여러 질서에서 어떻게 그 위에 지배자를 세우지 않는 세계 질서가 생겨나는지는 다음 장에서 펼친다.

길을 무엇으로 잴 수 있는가

이름은 지녔으나 내용을 잃어버린 질서는 앞서 말한 세 번째 위험이며, 이에 맞서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어떤 사업이 아직 SOLIS인지, 아니면 이름만 그런지를 언제든 검토할 수 있는 잣대다. 그것은 단순하며, 누구나 대어 볼 수 있다. 기본 공급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본권 관찰이 삶의 현실에서 그 이행을 재고 있는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에 추첨이 채우는 부분과 임기의 한도와 해임의 권리가 있는가. 결정과 자금의 흐름과 영향력 행사가 열람할 수 있게 열려 있고, 동시에 개인의 삶은 사생활의 보호 아래 있는가. 누구도 문턱을 넘어 가치 포인트를 쌓을 수 없는가, 포인트의 양이 공개된 숫자인가, 그리고 자본의 배분이 여러 독립된 길로 정해지는가. 생태적 비용이 모든 가격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공동체가 지구에서 돌려주는 것보다 덜 가져가는가. 교육이 질서 자체를 묻도록 가르치는가, 그리고 질서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보호되는가. 남고 싶지 않은 사람은 떠나도 되는가.

이 물음 가운데 하나에라도 아니라고 답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SOLIS처럼 들려도 길을 벗어난 것이다. 모두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 책과 아무리 다르게 보여도 그것은 SOLIS다. 이 질서를 이루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것도 아닌 권력,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번영, 살 만한 곳으로 남는 지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검토할 자유를 지닌 사람이다.

장

13



세계 질서: 민족들 사이의 SOLIS

마라의 사촌 토마스는 열 해 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질서로 떠났다. 그는 여름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그의 눈길은 해마다 조금씩 더 오래 강에 머물렀다. 같은 여름, 마라는 지역의 대표로 나라들의 의회에 앉아 있었고, 그때 행성 방위가 해마다 하는 훈련을 알렸다. 두 해 거리에 있는 바윗덩이 하나, 그리고 함께 겨누는 세 질서. 그 어떤 것도 누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요점이었다.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어떤 국경도 지키지 않는다. 기후의 변화, 새로운 전염병, 고삐 풀린 기술, 우주에서 오는 위협은 인류를 하나의 전체로서 덮치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막아 낼 수 없다. 그래서 안으로만 생각된 질서는 불완전하게 남을 것이다. 이 장은 SOLIS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묻는다. 여러 사회가 그 위에 새로운 지배자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그리고 인류가 자기 다양성을 버리지 않고 행성적인 것을 어떻게 함께 떠받치는지다.

행성 층위의 고리

세계적 문제에 대해 쉽게 떠오르는 대답은 세계 정부일 것이고, 그것은 모든 꼭대기 가운데 가장 위험한 꼭대기일 것이다. 한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지구에는 더욱 그렇게 적용된다. 최고 심급이 생겨나는 곳에는 장악의 최고 표적이 생겨나며, 어떤 거리도 그것을 이전의 어떤 왕좌보다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SOLIS는 여기서도 피라미드가 아니라 겹겹이 품는 구조를 고른다. 질서는 이웃에서 지역과 나라를 거쳐 행성 층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으로 지어지며, 각 층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고리다. 의회, 관직, 윤리 평의회, 사법, 심사 기구를 갖추고, 일부는 추첨으로 채워지고, 구성원이 바뀌며, 해임할 수 있고, 투명하며, 꼭대기가 없다. 그 위에 엄격한 형태의 보충성 원칙이 있다. 위 층위는 아래 층위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성 층위에는 정말로 행성적인 것만 남는다. 나머지는 모두 사람들 가

까이에 속한다. 그렇게 세계적 조율은 생겨나지만, 세계적 지배자는 생겨나지 않는다.

함께해야만 이루어지는 행성적인 것

그러나 어떤 과제는 인류 전체만이 풀 수 있다. 기후는 국경을 모르고, 병원체는 어떤 벽이든 넘으며, 한 손에 쥐어진 강력한 인공지능은 모두를 위협하고, 소행성은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이 몇 안 되지만 결정적인 경우를 위해 SOLIS는 행성 방위를 만든다. 공동의 조기 경보, 공동의 역량, 공동의 규칙이다. 그 안으로 각 질서의 지구 방위가 흘러들며, 그것은 그 자체로 다시 고리에 매여 있고 어떤 단일 세력의 것도 아니다. 인류의 종말로부터의 보호는 어떤 주권도 자기 것으로 남겨 둘 수 없는 단 하나의 과제이며, 동시에 어떤 세력도 자기 부상의 구실로 남용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과제다. 그래서 행성 방위 역시 추첨과 순환과 책임 아래 있다. 모두의 것인 공유재, 곧 대기와 바다와 우주의 유산은 이 층위에서 지역의 정수장과 똑같은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세계적 정의

하나의 공동 행성은 하나의 공동 정의를 요구한다. 모두의 것인 재화를 소수가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 수익은 먼저 손을 뻗는 이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돌아간다. 부가 과거의 불의에 기대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정의에 속한다. 영

원한 빚으로서가 아니라 정직한 청산으로서다. 부유한 지역은 특별한 의무를 진다. 책임은 능력과 수단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도 다른 사회를 착취하는 데 자기 번영을 세워서는 안 된다. SOLIS에서 다양성은 배울 거리가 있는 힘이지, 민족 사이의 위계를 위한 구실이 아니다.

소속과 이주

누가 공동체에 속하며, 어떻게 그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떠나는지는 모든 질서의 핵심을 건드린다. SOLIS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붙든다. 하나는 떠날 권리다. 어떤 사람도, 그 질서가 아무리 정의롭다 해도, 질서에 사슬로 묶여 있지 않다. 이민을 떠나거나 자기만의 다름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사람은 그럴 수 있으며, 남을 해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만이 그 한계다.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된 통제된 막이다. 정당한 다름은 통과시키고, 누군가 밖에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틈만 막는다. 다른 하나는 올 권리다. 이주는 위협으로 다뤄지지 않고, 보호를 구하는 이들과 받아들이는 공동체 모두에 대한 책임 속에서 질서 있고 인간적으로 다뤄진다. 오는 사람은 첫날부터 기본 공급과 기본권을 얻고, 대기실 대신 언어와 기여에 다가간다. 받아들이는 쪽은 받아들임이 지속되도록 필요한 수단을 얻는다. 이때 통합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양쪽이 배우며, 다양성은 존중되지만 다섯 가지 토대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다. 떠나도 되는 질서는 출구를 잠가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 내는 것으로 설득해야 한다.

섞인 세계에서 살아남기

SOLIS는 텅 빈 세계에서가 아니라, 그 원칙을 함께하지 않는 세력들 곁에서 생겨난다. 다른 이들이 그러지 않을 때 스스로를 생태적으로, 윤리적으로 묶는 사회는 그 본보기가 효과를 내기도 전에 짓밟히거나 가격 경쟁에 밀릴 수 있다. SOLIS는 이에 물러섬으로도 공격으로도 아니라 연대로 맞선다. 뜻을 같이하는 지역들의 동맹, 서로를 지키는 방위, 회복력 있고 이어진 공급망, 나눈 지식이다. 밖을 향해 SOLIS는 여러 극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지지한다. 어떤 블록도 모두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지역과 문화는 자립하면서도 이어져 있으며, 균형은 서로에 대한 의존과 존중과 분명한 경계에서 생겨난다. 혼돈 없는 다양성, 굴종 없는 질서다. 밖을 향한 그 길은 안을 향한 길과 같다. 쓸모없게 만듦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새 질서가 사람들을 눈에 띄게 더 잘 섬기는 곳에서 옛 질서는 기댈 곳을 잃는다. 그때까지 SOLIS는 스스로 침략자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룬 것을 지킨다.

하나로 묶였으되 획일적이지 않은 인류

목표는 세계 국가도 조각보도 아니라, 하나로 묶였으되 획일적이지 않은 인류다. 다섯 가지 토대는 어디서나 적용된다. 존엄, 균형, 지구에 대한 책임, 지식과 지혜의 증진, 장기적 회복력이다.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공동의 핵이다. 다른 것은 그 밖의 모든 것이다. 제도의 모습, 문화의 언어, 의미에 이르는 길이다. SOLIS

가 좋은 삶에 대한 하나의 생각을 처방하지 않는 만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은 그만큼 단호하게 붙든다. 좁고 단단한 핵과 그 위의 풍성한 다양성, 그것이 인류가 여럿이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하나로 행동할 수 있는 질서다. 우리의 미래는 모두의 것이거나, 아무의 것도 아니다.

장

14



요약과 전망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토대



책의 끝에서 SOLIS가 도대체 무엇이며 다른 구상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답은 이렇다. SOLIS는 굳어 버린 법도, 바뀌지 않는 선언문도, 한 사회에 덮어씌우는 완성된 모델도 아니다. 그것은 배우고 자라는 체계이고, 틀이며, 태도이고, 모든 사회와 모든 세대에서 새로 삶으로 채워야 하는 나침반이다. 그 모든 유연함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로 붙드는 것은 모든 영역을 붉은 실처럼 꿰뚫으며 그 윤리적 등뼈를 이루는 다섯 가지 토대다.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해치지 말라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요구한다. 그것은 어떤 저울질도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절대적 바닥이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은 다른 질서들이 서로 맞서게 하는 것을 한데 붙든다. 책임 없는 자유는 무분별하고, 자유 없는 책임은 억압이며, 진정한 자유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알아보고 확신에서 그것을 다할 때 생겨난다. 지구에 대한 책임은 지구를 덜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치유해야 할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며, 모든 결정에서 지구에 목소리를 준다. 지식과 지혜의 증진은 질서를 가장 나은 앎과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판단 위에, 그리고 모든 지식이 열려 있고 모든 권위를, 이 권위까지도 물어도 된다는 것 위에 세운다. 끝으로 장기적 회복력은 견뎌야 하는 모든 것을 분산되고, 배울 줄 알며, 유연하게 지어, 질서가 시련에 부서지지 않고 더 강해져 나오게 한다.

그러나 이 책이 이 가치들 곁에 제도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아무 결과도 낳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물음, 곧 권력에 관한 물음에 SOLIS는 최고 기관으로 답하지 않는다. 국민 안에 닻을 내리고, 추첨과 순환과 해임과 지식과 결정의 분리로 오래 가는 장악에 맞서 지켜지는 꼭대기 없는 고리로 답한다. SOLIS는 경제를 없애지도 전지적으로 계획하지도 않고, 시장에 한계를 둔다. 권리로서의 기본 공급, 쌓아 둘 수 없고 그 가격이 생태적, 사회적 한계 안에서 분산된 신호로 생겨나는 가치 수단으로 얻는 선택재, 그리고 여러 손에 남는 자본이다. SOLIS는 공론장을 진리부가 아니라, 입증 책임과 이의 제기와, 결코 SOLIS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움직일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절차로 지킨다. 그리고 시민을 순종이 아니라 성숙으로, 그 질서가 그럴 만하다면 질서 자체를 버릴 수 있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길러 낸다.

한눈에 보는 구성 요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그 구성 요소를 맥락 속에서 안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나란히 세워, 구상의 모든 부분을 다른 모든 부분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질서는 그 부분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때에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토대는 협상할 수 없는 핵이다. 존엄, 균형, 지구에 대한 책임, 지식과 지혜, 회복력이다. 나머지는 모두 자유다.

고리는 권력의 질서다. 시민 전체에 닻을 내린 꼭대기 없는 기관들의 원이며, 이웃에서 지구에 이르는 모든 층위에 있다. 그 안에 묶인 사람은 고리에 매여 있다.

의회는 선출된 이와 추첨된 이가 섞여 자기 층위의 법과 예산을 의결한다. 임기가 있는 관직은 기한을 두고 바뀌며 집행한다. 현자 평의회는 지평 너머를 생각하며, 명령하지 않고 조언한다. 윤리 평의회는 토대에 비추어 심사하며 멈춰 세울 수 있다. 사법은 고리의 기관들을 포함해 모두를 구속한다. 투명성 및 심사 기구는 지식을 열어 두고 기본권을 지켜본다.

시민 전체는 네 가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질서의 채택, 그 핵을 건드리는 모든 일, 그 기관들의 해임, 그리고 회부되거나 청원으로 끌어온 물음이다. 나머지는 모두 의회가 결정한다.

추첨, 순환, 해임, 그리고 지식과 결정의 분리는 장악에 맞서는 네 가지 구성 요소다. 그것은 무장한 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 공동체 은행, 그리고 자본의 배분에 적용된다.

스스로 끝나는 예외는 위급할 때 빠르게 행동하게 한다. 공개되고, 기한이 있으며, 만료일이 있고, 사후에 심사받으며, 해체할 의무를 진다.

권리로서의 공급은 모두에게 아무 대가 없이 기본 공급, 곧 주거, 에너지, 먹을거리, 건강, 교육, 이동을 보장하며, 공동체 몫이 이를 떠받친다. 받침의 재화가 서로 다를 때는 연줄이 아니라 필요와 순서와 추첨이 정한다.

가치 포인트는 기여에 보상하고 선택재를 산다. 사람에게 묶여 있고, 이자가 없으며, 쌓아 둘 수 없고, 투기할 수 없으며, 그 가격은 단단한 생태적 한계 안에서 분산된 신호로 생겨난다. 대비의 문턱까지는 모으고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위로는 그럴 수 없다.

포인트의 양은 공개된 숫자다. 새 포인트는 등록된 기여에 대해서만 공동체 은행에서 생겨나며, 한 시간의 기본 가치, 공동체 몫, 문턱이라는 세 개의 열린 조절 장치가 그 양을 선택재로 생겨나는 것에 맞춘다.

공동체 몫은 모든 적립에서 공동체 금고를 채우는 몫이며, 일정한 문턱 위에서 커진다. 그것은 세금을 대신하며, 원천에서 단순하고 쓰임에서 눈에 보인다.

사업체는 적립금은 쌓되 재산은 쌓지 않는 사업체 계좌를 지닌 참여자들의 공동체다. 그 물처럼 얽힌 기금은 여러 독립된 길로 자본을 배분하며, 그 일부는 이단을 위해 남겨 둔다.

막은 밖을 향한 통제된 경계다. 실제의 필요를 위한 가치와 정당한 다름을 지닌 사람은 통과시키고, 축적이나 권력이나 파괴가 들어올 틈은 막는다.

옛 재산의 옮김은 이행을 정한다. 개인의 재산은 남고, 금융재산은 문턱까지 가치 포인트가 되고 그 위로는 의결권 없는 기금 지분이 되며, 기업은 사업체가 되고, 안에서의 빚은 공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이 소멸한다.

생명의 터전의 대변인은 생태계와 동물과 미래 세대에게 질서의 기관들 앞에서 목소리를 준다.

비대칭적 투명성은 권력을 투명하게 하고 개인을 보호한다. 관직과 기금과 알고리즘과 출동은 열려 있고, 시민의 삶은 사적인 것으로 남는다.

절차의 한계는 질서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 공론장의 심사 절차도 안보 기구도 결코 SOLIS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떠날 권리와 SOLIS까지 물을 수 있는 성숙함은 마지막 안전장치다. 떠나고 버릴 수 있는 질서는 자신이 이루어 내는 것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 토대와 구성 요소는 그저 나란히 놓여 있지 않다. 그것들은 사회, 법, 안전, 경제, 지구, 교육, 건강, 문화, 기술, 가족,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잇는다. 여기에 SOLIS의 본질이 있다. 기술 관료주의도 이데올로기도 완성된 처방도 아니라, 자유와 책임과 존엄과 지속 가능성이 서로를 키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떠받치

는 살아 있는 연관이다. 그것은 분명한 나침반을 지닌 질서이며, 실수를 허락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스스로 나아진다.

왜 SOLIS가 필요한가

왜 이토록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며, 왜 기존 체계를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물을 수 있다. 대답은 인류가 그 파장이 이전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 갈림길이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는 데 있다.

행성의 차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단과, 동시에 지구를 치유할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다. 물음은 오직 우리가 어느 방향을 고르느냐이며, 여기서는 그저 고치는 것으로는 더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의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과 신경공학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며, 우리를 잇는 만큼 가를 수도 있다. 누가 그것을 조종하고 누가 윤리적 한계를 정하느냐가 결정한다. 사회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를 먹이고, 가난을 끝내고, 모두에게 교육을 줄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수백만이 굶주리고 불평등은 커지며, 그래서 이 지식을 공정하게 쓸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드는 대신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이냐는 물음이 떠오른다. 그리고 마음의 차원에서 세계는 믿을 수 없는 진보를 자축하면서 동시에 속에서 타들어 간다. 물음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저 기능하기만 하는 사회를 원하는지, 아니면 피어나는 사회를 원하는지다.

이것은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다. 우리는 이미 이 찢어지는 시험의 한가운데에, 진보를 자축하고, 불의를 굳히며,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생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으며, 마음이

지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작은 수리나,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부딪힌 체계를 기우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과 지구와 기술과 의미를 새로 잇는 새로운 건축, 새로운 토대,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끝에는 그보다 작지 않은 물음이 있다. 우리가 인류로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꽃필 것인가. 이 지구 위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자라고 배우고 치유하는 문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간이 다그친다. 머뭇거리는 모든 세대는 어쩌면 더는 선택권이 없을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큰 비전

SOLIS는 개혁안이나 정치적 의제나 경제 구상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비전이며,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당 강령이나 국익보다도 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비전이다. 그것은 모든 아이가 자기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갖고, 어떤 재능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 세계를 그린다. 부가 담장이 아니라 나누어진 책임을 뜻하기에, 다른 이들이 넘치게 사는 동안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세계다. 일이 착취 대신 충만을 가져오고, 기술이 사람을 섬기며 그 반대가 아니고, 우리가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과 함께 일하는 세계다. 문화들이 서로 싸우는 대신 함께 춤추고, 우리가 정복자가 아니라 배우는 수호자로서 별을 바라보는 세계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지만 비현실적이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것이다. 여기에 SOLIS는 두 가지로 답한다. 첫째, 이 책은 어디에서도 더 나은 사람을 전제하지 않았다. 그 모든 구성 요소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 곧 잘못할 수 있고, 제

이익을 챙기며,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 지어졌고, 바로 그렇기에 견딘다. 둘째, 이 비전은 순진한 꿈이 아니라 잣대이며,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체계와 결정과 구조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빛의 선이다. 문제는 우리가 완벽한 세계를 만드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기를 거부하느냐다. 이런 비전은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낸다. 변화가 가능하고 미래를 빚을 수 있음을 보여 주어 희망을 준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을 평가하도록 도와 방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왜 변화의 수고를 떠맡는지, 곧 불평등과 파괴와 냉소가 표준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물음에 답하여 의미를 준다. 그렇게 그것은 전체 위에 내면의 별로 떠서, 어두운 순간에도 방향을 주고, 다음 선거 주기를 넘어 다가올 세대를 바라보게 한다.

인류를 부르는 소리

이 대목은 분석도 이론도 아니라 호소다.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위에 있는 이들이 다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정치와 제도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거나, 새로운 강한 남자나 완벽한 프로그램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해 주리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소와 절망 속으로 물러나거나, 화면과 아이러니 뒤에 숨거나, 한 사람으로는 어차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하지 않다.

사회는 정부도 체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날마다의 결정과 말과 행동을 지닌 우리 모두다.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새로

운 길을 시도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살고, 더 공정하게 행동하고, 더 세심하게 말하며, 다른 이들과 이어지고, 이웃과 활동을 튼튼하게 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대화를 열고, 눈에 보이는 본보기가 되며, 지식을 나눌 수 있다. 그러려면 구원자도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임계 질량이다. 우리는 다르게 원한다, 더 낫게 원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삶에서 시작한다. SOLIS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움직임도 큰 변화의 일부가 되는 그물이자 가능성의 들판이다.

상상해 보라. 한 도시에서 한 학교가 급식을 바꾸고, 더 많은 공동 결정을 허락하고, 마음 챙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한 이웃에서 사람들이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공공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한다. 한 사업체에서 참여자들이 노동 시간을 새로 짜고 수익을 더 공정하게 나눈다. 이 사업들 가운데 어느 것도 혼자서는 세계를 바꾸지 못하지만, 함께라면 점점 더 촘촘하고 튼튼해지는 그물을 이룬다. SOLIS의 부름은 당신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목소리를 지녔고, 힘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물음은 당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용기와 마음과 희망을 품고 당신의 몫을 할 준비가 되었느냐다.

맺음말

이 책은 엘리트나 학계나 회의를 위해,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는 문서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 이 책은 날마다 일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흔히 조용

히, 흔히 보이지 않게, 흔히 지친 채로, 그리고 때로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바깥 어딘가에 자기를 부르고 다른 이들과 이어 주는 더 큰 무언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들이다. SOLIS는 일상이 허락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끼고,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할 용기를 지닌 모든 이에게 보내는 초대다.

마라는 없다. 요리사도 없고, 강도 없고, 빛의 축제도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책 안에서 구성 요소 하나하나로 지어져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위해 지어져 있다. 그것이 꿈과 구상의 차이다.

조언과 결정 사이에 경계를 긋는 책은 그 경계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이 책은 한 사람이 구상하고 썼다. 이 판을 첫 판과 다르게 만든 개정 작업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를 도왔다. 그것은 모순을 찾고, 빈틈을 짚고, 문장을 제안했다. 모든 낱말을 검토하고, 버리고, 책임진 것은 그 자신이다. 기계는 대답을 밝혔다. 물음은 사람이 던졌다.

그러니 이 책을 아직 올 이들에게 바친다. 그들이 그저 보호받는 데 그치지 않고, 먹여지고 튼튼해지는 세계에서 자라기를. 이 책을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건네준 노인들에게 바친다.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기리고 그들의 경험을 지키기를. 그리고 이 책을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산 사람들에게 바친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의미와 연결을 향한 그리움이 우연이 아니라 부름이라는 것을 알아보기를. 이때 SOLIS는 교조도 경전도 되고 싶지 않다. 나침반이자 도구이며, 다리이자 시작이 되고 싶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라고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행동하라고 초대한다.

종이 위에서 이 책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끝나지 않고 시작한다.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리고 거기서 자라날 행동 속에서다. SOLIS가 벙커가 아니라 다리가, 권

력의 등대가 아니라 빛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되기를. 아이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지구를 위해, 별들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위해.

SOLIS는 당신이 그것을 살아갈 때에만 살아 있다.

System of Learning,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 SOLIS.